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5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15일(음력 12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선명상 대중화 불사 올해도 '현재진행형'

"포교 없인 불교 미래 없다"
탁월한 포교 방안이 '선명상'
프로그램 · 콘텐츠 개발 박차
상반기 국제선명상대회 예정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이 올해도 '선명상 대중화'를 역점으로 포교·전법의 기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불교의 위상 제고와 대중적 신뢰 확립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은 1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69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평가 및 37대 핵심 주요 종책과제 이행 점검 워크숍'을 열고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포교의 중요성과 그 기반이 되는 선명상 대중화의 확산을 재차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중앙종무기관 종사자들에게 "올해도 '선명상 대중화'를 목표로 대중이 불교를 알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포교가 안 되면 불교는 살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감소하면서 불교 인구도 더불어 줄고 있다. 1970~80년대만 2000만 불자에서 2000년대부터는 1000만 불자, 지금은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자 종단인 조계종이 모범이 돼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야 살림이 나아지고 출가자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가자는 '포교'가 뒷받침될 때 자연히 늘어난다고 확신했다. 진우 스님은 "출가장려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 기반이 포교다. 우선 불자가 많아야 출가자도 늘어난다"며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탁월한 포교 방법이 바로 '선명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 고유의 '선'을 간화선, 조사선이라 하면 대중이 그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전법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며 "인생을 사는 데 실제로 도움이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 선명상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선명상이 보급되면 전법도 자연히 이뤄진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이 같은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을 정확히 가져 종무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계종은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선다. 조계종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연령, 수행의 기초·심화에 정도에 따른 선명상 프로그램과 선명상 콘텐츠가 활발히 개발 중이며, 지난해 12월 위촉된 51명의 선명상 지도법사 스님들을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 선명상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각종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원 재무부에서는 선명상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서울 안암동 '조계종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곳은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025 국제선명상대회' 개최로 한국불교 정체성을 함양하고 선명상인프라를 총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 컨퍼런스와 전국 권역별 주요사찰에서 선명상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오늘 정진으로 성불 인연을"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거듭난 음력 12월 8일을 하루 앞둔 1월 6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에는 성도재일 참선 수행정진 법석이 펼쳐졌다. 이날 정진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선원장 관도 스님, 교무국장 능원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전생부터 이어져 온 1시간, 2시간의 공덕이 지금 100시간, 1000시간의 공덕의 바탕이 된다. 그렇기에 성도재일 정진은 불자로서 최상의 인연공덕을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성도재일 현장 기사 5면〉

글 · 사진=김가령 기자

관음종, 개산조 기리는 '창종 60주년 법회' 연다

1월 8일 제62차 중앙종회서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의결
조사스님 '인생탈춤' 공연과
다례재·유품 공개 전시 예정
신년하례 법회 봉행도 함께

관음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개산조 태허 조사를 기리는 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월 8일 대전 계룡스파텔 화랑홀에서 제62차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산 스님, 부원장 도각 스님, 총무부장 홍경 스님 등 20여 명의 스님이 모여 성안됐다. 종회 안건으로는 △2024년도 결산 보고 △2025년도 예산 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종단 사업 심의 의결 △기타 안건 의결이 상정·가결했다.

2025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관음종은 창종 60주년을 맞아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올해 10월 국립극장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1부는 관음종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의 법어와 법요가, 2부는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조사가 저술한 〈인생탈춤〉을 토대로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선보여진다.

태허 조사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다례재와 유품 전시도 이어진다. 태허 조사의 출가본사인 순천 선암사 부도에서 열반다례재를 봉행한다. 이어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 앞마당에서 태허 조사의 유품을 전시해 대중들과 조사스님의 법향을 나눌 계획이다. 다가올 연등회에서도 '60주년 기념 장엄등'을 제작한다.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등과 공사상을 의미하는 '0'등을 제작해 관음종 창종 60주년을 기념하고 대승불교 정신을 홍포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교를 확대한다.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포교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베트남불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다. 이어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의 베트남 방문 및 베트남 불교계와의 교류·MOU를 통해 다문화 포교 역량을 키운다.

사찰 활성화를 위한 신규 종법 제정 안건도 논의됐다. 4년제 대학 불교학과 또는 불교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 법사 자격을 부여하는 건이다. 다만 대상자는 종단의 법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심기일전의 결의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종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머리를 맞대 주시라"고 전했다. 중앙종회의장 혜산 스님은 "올 한 해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여법한 결과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궁화홀에서 '관음종 신년 하례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관음종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통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항공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보례·반야심경 △종정 예하 신년법어 △총무원장 인사말 △사홍서원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는 신년법어에서 "오늘 마련된 야외 법단에서 을사년 한해를 맞게 됐다. 올 한해는 밝고 힘찬 신심이 넘쳐나는 해가 되길 바란다"며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바로 법당이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어지러운 정치와 참사로 많은 생명을 잃어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하게 됐다. 이번 법회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이번 법회는 관음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오늘 모인 사부대중이 기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민재 기자,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 광 불 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상진 스님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종단 중흥"

태고종 시무식 · 신년하례 봉행
1월 6일 종로 불이성 법륜사서
발전 기여 대중, 공로패 등 수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6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이성 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열린 '을사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고종 종도들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 중흥과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6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이성 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을사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호명 스님, 원로의원 일운 스님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교육원장 재흥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구산 스님, 법규위원장 정운 스님, 사회복지원장 성해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종정예경실장 동허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불·법·승 삼보에 통알삼배로 신년하례를 한 태고종 대중들은 원로스님과 참여대중에게 신년하례를 진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독려했다.

상진 스님은 "옛말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충실하고 진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을 가장 안정시키고 화합하게 만든다 말"이라며 "태고종은 종교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소이연(所以然)인 소외된 이웃의 구제와 사회 공통선 실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올해는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필두로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종단 차원에서 해나갈 것"며 "부디 종단 주요소임자들과 종무직원들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선조사님들의 지혜를 담아 다시 도약하는 종단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매일 수행 정진 △상호존중하며 화합 △자비 실천 △환경보호 △매사에 감사할 것 등 다섯 가지 조항을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호명 스님은 "을사년 새아침을 맞아 태고종도와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한 해를 만들자"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삶을 밝히며 진정한 행복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계엄 사태에 대해 엄중히 비판하며, 위기 속에서 길을 찾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시각 스님은 "어느 때보다 혼란과 불안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우리 불자들이 하루 빨리 사회가 정상화되도록 자리이타의 솔선수범을 보일 때"라며 "부디 대한민국 모든 이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과거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 일류시민으로 나아가는 재도약의 2025년이 될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고종 종도들은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종단 중흥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이에 앞서 상진 스님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스님, 전법사, 재가자들에게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며 공적을 치하했다.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 성파 종정예하 예방

1월 8일 통도사 서운암서…종정예하 "발전하는 언론 되길"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1월 8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명우 본지 대표,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1월 8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불교 언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날 예방은 한명우 대표의 취임인사 차 이뤄진 것으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도 함께 했다.

성파 대종사는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으며, 그 근본을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고로 불교언론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은 신행포교 전문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근본에 충실해 발전하는 언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법산 대종사는 "지난해 12월 18열 열린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 행사를 신문을 통해 접했다. 무엇보다 AI·뉴미디어 전법 비전에 대한 한명우 대표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면서 "현대불교신문의 미래가 밝다. 더욱 더 정진해 정법을 구현하는 언론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명우 대표는 "종정예하와 법계위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뉴미디어를 통한 언론 포교·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대충대종사 탄신 99주년 봉축법요식

1월 4일, 총본산 구인사서 봉행
1만 사부대중 가르침 계승 다짐



천태종은 1월 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99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불퇴전의 정진과 전법도생에 매진하며 천태종의 중흥을 이끈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의 탄신 99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가르침과 사상, 업적을 기리기 위한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99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도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의장 화산 스님, 감사원장 용구 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과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도용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불법 인연 무량한 소백산 연화성지에 성인이 탄생하시어 천태의 정법을 크게 펼치셨으니 인연중생 기쁨 속에 찬탄하는구나. 언제라도 인자하신 자비의 손길 관세음보살이셨으니 숙세의 크신 원력 이 도량에 꽃피우셨네. 거룩한 가르침 소중하게 받들며 일승묘법의 바른 길로 중생을 인도해야 하리라. 모든 공덕을 만 생명에 회향하여 인류의 평화와 국운융창을 일심발원하며 해탈성불의 길 힘차게 정진하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에서 "대충 대종사는 한량없는 보살심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혼탁한 사바세계에 자비광명을 비추시며 불자다운 삶, 그 가운데서도 천태 불자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다"며 "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천태종지를 널리 전법하시고 종단의 외형과 내실을 두루 갖추는 데 원력을 다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종단과 불교 발전, 국민 화합과 소통,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충 대종사는 1945년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각고의 정진으로 깨달음을 증득했다.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한 후 대중교화와 종단 교세 확장에 힘썼으며,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 조실에서 열반했다.

신중일 기자

정원주 중신회장 "마애불 立佛에 진력을"

1월 9일, 진우 스님 신년하례


진우 스님은 정원주 중신회장을 열암곡 마애불 건립위원 단장으로 위촉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구성원이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데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정원주 회장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건립위원단장'으로 위촉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불의 조속한 입불(立佛)은 국운융창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부처님 자비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 사회 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중앙신도회가 마음과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가진 호국불교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중앙신도회 불자들이 이웃들에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설법을 해준다면 사회 안정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법과 포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열암곡 마애불 건립위원단장'이라는 직책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화답하며 "중앙신도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명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법·포교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이 정한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12. 16(월) ~ 2025. 02. 07(금)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5. 02. 14(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재가자로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

“비구니스님 권익 증진·불교 중흥 위해 정진”

비구니회 1월 9일 신년하례법회
제주항공 참사 49재 기금 전달도
1월 6일엔 진우 스님 예방해 인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하고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증진과 한국 불교 발전을 염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신심과 공심으로 비구니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승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선후배가 될 것을 선서합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증진과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월 9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2025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 원로의원 묘관·보각·혜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부회장 혜욱·일양·정묵·서광 스님, 부운영위원장 혜문·지효 스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심원 스님, 사찰음식연구소장 선재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철우·혜도·정관·진상·혜성·법해·지인·설해 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여학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지회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년하례법회는 회장 광용 스님 헌향,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헌다, 종회의원 정운 스님 헌화,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도서 봉정으로 시작됐다.

부처님 전 삼배와 원로의원스님과 회장스님을 향한 하례, 대중배례로 신년 인사를 나누고 소임자 선서, 원로회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 회장 광용 스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지난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비구니스님들의 권익과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해를 만들겠다. 워크숍 등을 개최해 탄탄하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다짐했다.

앞서 원로회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은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보내고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아 전국 불자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축원하며 “국내외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 잘 지켜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1월 6일 전국비구니회는 신년하례를 위해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지난해는 종단적,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다. 올해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종단에 (비구니스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종단의 한 축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덕담했다. 이어 “올해 조계종은 3원을 통합해 1원 체제로 구성되면서 교육원이 교육부로, 포교원이 포교부로 전환된다. 특히 포교부 내에는 포교사단을 비롯한 신도단체·신행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단체 스스로 포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신행단체 별로 담당스님들을 지정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비구니스님들이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신도단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십분 공감한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종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전국비구니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돈관 스님 “지혜와 끈기 가지고 개교 120주년 준비를”

1월 6일 동국대 신년하례서
60여 학교법인 구성원 참석
‘천사불여일행’ 정신 강조해
팔정도 동판 제막식도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구성원들이 1월 6일 신년하례식 후 팔정도 동판 제막식을 갖고 새해에도 지혜와 끈기로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새해를 맞아 학교법인 동국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하례식을 봉행하고 2026년 건학 120주년 준비를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월 6일 정각원에서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돈관 스님은 신년 법문에서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끈기를 지니고 다가올 2026년 건학 120주년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2025년 을사년은 할 일이 많다. 1년 뒤인 2026년은 동국대가 12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이라며 “청목(靑木)의 해인 을사년은 지혜와 끈기, 통찰력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올 한 해 지혜와 끈기를 바탕으로 여법한 12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각자 소임과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을 올해의 화두로 제시했다. 스님은 “천 가지 생각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뜻을 설명하고 “소임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올해와 내년 그리고 해마다 동국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재웅 총장도 “올해 2025년은 2024년에서 건학 120주년으로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징검다리 같은 해”라며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건학 120주년이 여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신년하례식을 회향한 후 곧바로 팔정도 광장에서 ‘팔정도 동판 제막식’이 이어졌다. 김성우 동국대 관리처장이 밝힌 경과보고에 따르면 동국대는 작년 총 29개 단과대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45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쾌거를 거뒀다. 그러나 이사장 돈관 스님은 대학생 불자의 양적 확대에 천착하는 상황을 경계해, 동국대 구성원이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만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팔정도 동판을 제작, 팔정도 광장 중앙에 설치했다.

팔정도 동판은 지름 2.1m, 무게는 400kg으로 구리 90%, 주석 10%의 청동합금으로 제작됐다. 김황록 미술학과 조소전공 교수와 김정아 건축학과 디자인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동국대 교표에 새겨진 팔정도를 각인해 디자인했다.

김민재 기자

진흥원, ‘원효학술상’ 등 공모사업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15회를 맞은 원효학술상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 분야에서 현대사회를 불교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한국철학 세계화에 노력하는 불교사상 연구 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자 부문 저서 대상 1명에 3000만원, 특별상에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상금 200~400만원이 주어진다. 접수는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단체를 발굴해, 꾸준히 불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관 및 단체별로 200~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이메일(kbpf2606@daum.net)로 관련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침체된 젊은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천년불자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대학생·대학원생에는 각 300만원이, 초등학교 불교동아리에는 50만원, 중·고·대·대학원생 불교동아리에는 150만원이 전달된다. 선정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며, 이메일(kbpf2606@daum.net) 제출로 이뤄진다.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 관련 연구자와 단체에 연구비를 지원, 적극적인 연구 활동원 독려하는 사업이다. 불교 학술 부문 저서는 500~1000만원, 번역서는 300~700만원이 지원된다. 불교 콘텐츠 부문인 만화, 동화, 불교 다큐멘터리,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500~800만원이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신청하며 된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조규태 제14대 국제포교사회장 취임

“조직 · 교육 · 활동 · 재무 혁신 통해 위상 제고” 일성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창립된 국제포교사회의 제14대 회장으로 조규태 국제포교사<사진>가 취임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1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체험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국제포교사회/(사)문화나눔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14대 국제포교사회장으로 조규태 26기 국제포교사가 취임했다. 조규태 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국제포교사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유권자 총 67명이 투표해 찬성 56표, 반대 3표로 당선됐다.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제포교사회 조직 및 시스템 혁신으로 재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시스템, 재무, 교육, 포교 활동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제포교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소임자 권한 및 책임 강화, 지역거점사찰 MOU, 투명한 회계운영, 수익사업 개발 등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포교사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단체로서 우리 사회를 이끌고 불국토를 넓혀가자는 발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면서 “14대 집행부는 국제전법을 위해 진력하고 국제포교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재 기자

靈鷲山雲門寺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 천혜의 자연환경 속 역사문화관 · 수목원을 갖추고
다양한 학인복지 제도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모 집 대 상** _ 사미니, 비구니 스님 및 2025년 봄 사미니수계(행자교육 제68기) 예정자까지
- **모 집 인 원** _ 사미니과 ○○명
- **제 출 서 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 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 **모 집 기 간** _ 2024년 12월~2025년 3월 6일(음력 2월 7일)까지(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전 형 방 법** _ 서류심사, 면접
- **예비소집일** _ 2025년 1월 1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3시까지
- **준 비 물** _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전 형 일 시** _ 2025년 1월 1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특 전** _ • 운문사 내 문수선원 해제철 실참 수행 가능
  • 신입생 전원 태블릿 PC 무상 지원, 졸업여행비 지원
  • 대만 불교 연수 프로그램 전액 지원(1주일간)
  • 입학금 면제, 전학년 교재비 지원 • 정기적인 초청 특강
  • 자연과 함께하는 천연황토 산책길
  • 동국대병원 MOU 체결, 병원비 · 약품비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주지 은광 · 학장 영덕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 집 대 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5년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통학 가능)
- **모 집 인 원** _ ○○명
- **제 출 서 류** _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 **모 집 기 간** _ 2024년 12월~2025년 3월 6일(음력 2월 7일)까지(당일 접수도 가능)
- **전 형 방 법** _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 **전 형 일 시** _ 2025년 1월 19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 **교육과정요강** _ •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 기초문법 배우기, 초기불전(초전법륜경, 무아상경, 대반열반경) 강독
  • 한문불전강독 : 법화경, 정토삼부경 등
- **특 전** _ •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 지원
  •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자격
  • 종단교육 연수비 지원 •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 정기적인 초청 특강 • 1인 1실 방사 제공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명성 · 원감 일진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정진”…간화선 집중수행 열기 ‘고조’

동국대 간화선 집중수행 현장을 가다

1월 3~9일 교내 무진선원서 개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직접 지도
“24시간 쉬지 않고 의심이 돼야”
60여 동참자, ‘화두’ 잡고 정진
동참자 “몸과 마음의 변화 체험”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1월 3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법학관 무진선원(좌선실)에서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나는 왜 안 변할까’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오직 화두에 사무쳐 답만 찾으십시오. 빠져나갈 길 따윈 없습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꽉 막힌 그 자리에서 젖 먹던 힘을 다해 화두를 참구하세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법문에 동참자들의 눈빛이 성성히 빛난다. 생각 이전 자리, ‘깨달음’을 향한 의심은 커져만 간다. 마치 밤송이를 삼킨 것 같이 불편하고 답답한 ‘의단(疑團)’ 속에서 60여 동참자들의 수행은 깊어져 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1월 3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법학관 무진선원(좌선실)에서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번 집중수행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선 수행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동국대 불교대 석좌교수)이 지도법사를 맡았으며 60여 동참자들을 대상으로 법문, 집중 수행, 면담 등이 진행됐다. 7일 간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동국대 종학연구소에서 발급하는 자체 수료증이 수여된다.

1월 7일 찾은 동국대 무진선원에서는 수불 스님의 간화선 법문과 질의응답이 한창이었다.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분별할 시간도 아깝다”며 그저 화두에 철저히 사무칠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된다, 안 된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등 분별하지 말고 ‘그냥 (화두 참구) 해라’”며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다.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답만 찾겠다는 일념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동참자들의 체험이 담긴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집에 돌아가면 수행이 안 된다”는 질문에 스님은 “24, 48, 72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의심이 이어져야 한다”며 “어떤 환경에 있던 계속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끝까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라. 그게 유일하게 살길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불 스님은 동참자들을 향해 죽을 각오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지혜는 체험을 통해 안목이 트여야 얻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야만 업(業)이 녹는다”며 “알음알이로는 절대 업을 녹일 수 없다.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죽기 살기로 (화두에) 달려들라”고 동참자들을 독려했다.

스님의 법문은 동참자들의 수행에 박차를 가했다. 오직 화두를 타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동참자들은 입을 모아 “몸과 마음이 변화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처음으로 간화선을 접한 카피타자 스님(미얀마, 동국대 석사과정)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수행인 간화선의 ‘맛’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본 것 같다.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처음에는 오래 앉는 것이 괴로웠지만, 한 순간 그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에 두 번째로 참여한 한승은(45) 씨는 입고 있었던 ‘두꺼운 갑옷’을 내려놓은 듯한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처음 참가했을 때는 감을 잡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물리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처음에는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체험을 하다 보니 정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에서 수학 중인 이지우(41) 씨는 “수불 스님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체험에 다다른 것 같다. 자기 체험이나 경험에 집중하면 더 힘들어진다”며 “‘번뇌’나 마음의 응어리 등 이런 것은 본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눈을 뜨게 되니 희로애락 같은 망상이 녹아내렸다”고 후기를 남겼다.

홍대선원 행턴 2기 출범…청년·외국인까지 확대

1월 5일 경내 법당서 입재식
행자–인턴 개념 연계 인턴쉽
총 4명 2월까지 근무할 예정
준한 스님 “배우고 도전하길”



한국불교 최초의 사찰 인턴쉽, ‘JustBe 인턴쉽 行턴(이하 행턴)’ 2기가 출범했다.〈사진〉 행턴 2기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1기와 달리 30대 청년, 외국인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1월 5일 경내 법당에서 ‘Justbe 인턴쉽 行턴 2기 입재식’을 봉행했다. ‘행턴’은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行者)와 정규직 채용 전 실습 과정을 밟는 인턴(intern)의 합성어로 홍대선원만의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이다. 수행과 습의에 집중된 기존의 단기출가와 달리, 행턴 프로그램은 사찰 소임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불교공동체에서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입재식에는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송산하 행턴 총괄 스태프, 신수용·유솜이·김영호·이승민 등 행턴 1기와 문서윤·홍수민·케빈·진익동 행턴 2기가 자리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행턴 2기에게 “항상 배우고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은 나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니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면서 “자기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믿고 도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턴 2기에는 만19~30세 청년 총 7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4명이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다.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1기와는 달리 행턴 2기에는 직장 경험이 있는 30대 청년들과 외국인이 동참했다. 교육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문서윤(30) 씨는 “홍대선원은 머무를 때마다 위로를 받았던 힐링과 애정의 공간”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그동안 받았던 에너지와 위로를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수민(31, 홍대선원 신도회 도반 1기 회장) 씨는 행턴에 참여하기 위해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퇴직했다. 홍 씨는 “매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채직찔하며 살았는데, 홍대선원에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원했다”면서 “불교와 명상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케빈(30, 노희원, 캐나다) 씨는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불교와 사찰에 끌렸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프랑스, 미국, 태국, 한국 등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찰을 참배했다. 그중 해인사 스님의 권유로 한국불교를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행턴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상불사 등 8곳 2024년 우수 녹색사찰 선정

불교환경연대 1월 8일 시상식
전북 귀신사, 하남 상불사 등
환경상에 한마음선원 선정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1월 8일 본부 교육관에서 ‘제7회 녹색사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찰을 시상했다.〈사진〉

대회에서는 2024년 한해 모범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한 사찰 및 시설에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된 곳은 △춘천 봉덕사(주지 혜욱 스님) △부산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 스님) △고창 귀신사(주지 무여 스님)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 스님) △의정부 석림사(주지 능인 스님) △화순 시적암(주지 법일 스님) △울산 서장사(불성 스님)이다.

또한 ‘그린붓다데이’ 캠페인으로 사부대중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일깨운 전국비구니회는 특별상을 받았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협동조합 지구사랑작은실천 운영과 유용미생물군(EM) 보급, 환경교육 등을 통해 대중들의 환경의식을 높인 공을 높이 평가받아 환경상을 수상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시설에서 환경 활동에 참여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녹색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가령 기자

태고종 안심정사, 대학교 불교 강좌 지원

2월 20일까지 공모 진행

도심 포교를 이끌고 있는 태고종 논산 안심정사가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 불교 강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태고종 논산 안심정사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 대학교 불교 강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불교계 종립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불교와 사회복지, 심리상담, 불교문화와 예술, 불교와 인간관계, 불교와 세계문화, 불교와 환경 등 불교 교양 강좌로 전국 4년제 대학 소속 교수와 강사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이며, 강좌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jyk901@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교수와 강사들에게는 오는 2월 28일 개별 통보가 이뤄진다.

신중일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진우 스님 "선명상·육바라밀 실천으로 업장 소멸"

고운사 · 안동사암聯 성도재일 법회서 법문

법사로 등단해 자비행 강조해
지역 스님, 불자 800여명 참석
"지역불교 발전에 매진을" 다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성도재일을 맞아 안동에서 열린 대법회에서 법사로 나서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와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1월 7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불기 2568년 성도재일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매년 성도재일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경축하고 불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회는 도량결계의식으로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독경과 명종 5타, 육법공양에 이어 1부 기념식 삼귀의례와 보현행원,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 봉행사, 격려사, 축사 그리고 2부 성도재일법회 법어, 시상, 발원문 봉독, 음성공양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사로 단상에 오른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운사와 봉정사, 봉암사, 불국사, 동화사, 은해사, 도리사, 직지사 등을 언급하며 "안동과 그 주변은 그야말로 불교의 본 고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척박한 상황에서도 포교와 전법의 일선에 있는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 불교가 성성하게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분들"이라고 격려를 보낸다.

진우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불교는 조선시대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켜져왔지만 서양종교가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역사를 속에서 약세를 겪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안정을 찾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시대 흐름 속에서 불교 정신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선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7일 고운사와 안동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성도재일 법회에서 법문을 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진우 스님은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업장 소멸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늘 업장소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 해야한다"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5초 명상을 권했다. 이어 업을 줄일 방법으로 육바라밀을 강조했다. 스님은 "육바라밀 실천은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게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자비행으로 복을 쌓으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아가 이웃과 국가, 넓게는 세계가 평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진우 스님은 지역 불교계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하며 영주·풍기 영전사 주지 해득 스님에게 총무원장상을 수여 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교계의 화합을 강조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은 우리에게 연기의 진리를 일깨워 주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아는 것은 오늘날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라면서 "총무원장 스님의 법어를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자비와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길 바란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등불이 돼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성도재일 법회를 통해 모두들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여 대중들은 안윤효 제16교구 신도회장의 대표 봉독한 발원문에서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겨 지역 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는 제16교구 연합합창단이 음성공양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법회에는 800여 사부대중이 동참, 안동 지역 불교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새벽별 보고 깨달은 부처님처럼 정진하겠습니다"

조계사 봉은사 등 전국 사찰
성도재일 맞아 정진 이어가
월정사 본말사 전야 정진법회
제주항공 참사 희생사 추모도
지역 불교도 수행 열기 뜨거워

신중일 · 김내영 · 김가령 기자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거듭난 음력 12월 8일을 맞아 전국 사찰들은 전야인 1월 6일부터 수행 정진을 이어갔다.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월 6일 경내 법왕루에서 성도재일 전야를 맞아 참선 수행정진을 진행했다. 수행정진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선원장 관도 스님, 교무국장 능원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은사는 이날 참선 수행정진에 이어 1월 7일 성도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성도절은 부처님오신날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날"이라며 "부처님께서 성불하지 않으셨다면 가르침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성도절의 의미를 전했다.

원명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의 뒤를 이어 성불하기 위해 수행·정진 한다. '한 두 시간 정진으로 성불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짧은 정진 공덕의 인연을 쌓아 성불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전생부터 이어져 온 1시간, 2시간의 공덕이 지금 100시간, 1000시간의 공덕의 바탕이 되고, 그렇기에 성도재일 정진은 불자로서 최상의 인연공덕을 쌓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당장은 성불을 하지 못 하더라도 이것이 쌓여 이내 성불할 수 있다고 믿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뒤이어 사부대중은 권미숙 신도회 사무총장이 대표 낭독한 '성도재일 전야 정진 발원문'을 통해 "오늘 정진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밝고 명료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닦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모든 중생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이며, 지금 이 자리가 영원히 빛나는 그 곳임을 아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눈이 뜨이도록 나아가겠다"며 "이를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길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서울 봉은사가 1월 6일 성도절 전야를 맞아 참선 수행정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길 발원하는 LED초를 든 채 포행하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모습. 사진=김가령 기자


월정사는 1월 6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성도재일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1월 6일 대웅전에서 성도재일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5일 성도재일 연합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은 발원이 담긴 LED초를 들고 법왕루 내부를 포행한 뒤 부처님 전에 초를 공양했다. 포행을 마친 이들은 각자 좌복에 앉아 봉은사 선원장 관도 스님의 죽비 3타를 시작으로 45분간 참선에 임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참선 정진은 45분 참선, 15분 포행을 세 차례 경행해 이뤄졌다.

매년 성도재일 참선 수행정진에 임하는 이정희 신도부회장(58, 무진혜)는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이 나아가신 길에 한 발자국이나마 인연을 쌓고 싶어 성도재일 참선 수행정진에 참여했다"며 "나와 내 가족, 주변인만을 위한 서원이 아닌,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서원을 세워 여여한 불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직영사찰인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는 1월 6일 성도재일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오후 8시부터 천수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경하고 108배 절수행, 선명상을 실참했다. 전강 영신 대선사의 오디오 법문을 들으며 깨달음의 의미와 수행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과 주지 스님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순으로 용맹정진을 회향했다.

오대성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 스님)는 불기2569년 성도재일을 하루 앞둔 1월 6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월정사 만월선원 대중스님과 월정사 사부대중, 포교사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재일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성도재일 법회에는 월정사 사부대중 뿐만 아니라 4교구 말사인 강릉 관음사포교당, 동해 삼화사, 원주 보문사, 횡성 백운암 사부대중도 비대면 온라인(줌)으로 법회에 참여했다.

퇴우 정념 스님은 법어에서 '제주항공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제안하고 "국가적 위기의 조속한 안정과 민생회복을 기원하는 슬프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성도재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부처님은 정각을 이룬 성도재일에 구세대비의 원력으로 세상에 오셨다. 오온을 쫓아가는 삶을 여의고 오온개공(五蘊皆空)의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고통과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면서 "마음은 심본무생(心本無生)이고 무수지수(無修之修)이다. 시비분별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호호탕탕하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대중을 독려했다.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스님)는 1월 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성도재일 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지산 대원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은 부처님이 인간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며 삼천대천 세계를 아우르는 대성인이 되신 날이다"며 "이 어려운 현실에 모두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생각을 한다면 더 좋은 삶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했다.

지역불교계의 수행 정진도 이어졌다. 경남 **통영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는 1월 5일 통영 마리나리조트 충무홀 1층에서 성도재일 연합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은 왕자로서 모든 부귀와 권세를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 싯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된 성도절을 봉축하는 날"이라며 "부처님께서 이루진 도의 큰 뜻을 깨달아 불자로서 본분을 항상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 내면의 지혜를 밝히자"고 당부했다.

관룡사 정안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색성향미촉법의 분별심에 사로잡힌 중생놀이는 그만하고 보살놀이를 즐기며 부처로 살아가자"고 설했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4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성도재일 기념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장 휘정 스님 봉행사에서 "오늘은 세존께서 6년여의 고행 끝에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며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는 자비, 이타행 등으로 표현되는 너무나 숭고한 행위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성스러운 내면을 갖추고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자"고 말했다.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경조 스님)는 1월 5일 대전비구니청림회 문화회관에서 '제39회 성도절 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 4대 명절의 하나인 성도재일을 맞아 이뤄졌으며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이 동참했다.

경조 스님은 대회사에서 "1986년 성도절 법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해 대전불교의 자긍심을 지켜왔다"며 "오늘 성도절 문화축제가 여법하게 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전주 포교당 전북불교회관(감원 제환 스님)은 1월 7일 관내 4층 대법당에서 '불기2569년 성도재일 대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신도회(회장 한광수)의 주관으로 봉행된 이날 대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감원 제환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한광수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포교신행단체 임원진들이 동참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성도하지 않았다면 불교가 없고, 불법을 알 수 없었으니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의 서원을 세워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국사 교구 발전 위해 대중화합 이끌겠다”

불국사, 조실 종우 · 회주 법달 대종사 추대

1월3일 조실 · 회주 취임 고불식
문중 어른스님 모셔 교구 안정
“지혜 덕망 갖춘 선지식” 추대

경주 불국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국사는 1월 3일 조실 · 회주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조실 · 회주 추대 직후 이뤄진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회주 법달 대종사, 조실 종우 대종사, 불국사 부주지 정문 스님.

경주 불국사(주지 종천 스님)가 종우 대종사를 조실로, 법달 대종사를 회주로 새롭게 추대했다.

경주 불국사는 1월 3일 경내 무설전에서 ‘불국사 조실 및 회주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 대종사, 불국사 회주 법달 대종사와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 법주사 회주 도공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박완규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고불식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로 시작했으며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헌화 및 내빈 소개로 이어졌다.

불국사는 고불식을 통해 교구의 안정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화합과 지도력을 갖춘 어른스님의 역할이 간절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불국사는 지난 1997년 월산 대종사의 열반과 2023년 성타 대종사, 2024년 종상 대종사의 열반 등 어른스님의 빈자리로 문중 혼란을 예상하고 수행력과 지혜를 갖춘 조실스님과 회주스님을 새롭게 모실 것을 결의했다.

주지 종천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큰스님들의 갑작스러운 열반으로 인한 문중의 혼란을 없애고 교구의 안정과 종단 발전을 위해 수행력과 지혜를 갖춘 새로운 명안종사와 교구와 문중의 화합을 위한 회주스님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며 “새로운 조실과 회주는 원만한 성품으로 대중을 화합시키고 미래를 보는 탁월한 안목으로 세간과 소통하며 수행자의 자질과 문중, 교구의 발전을 위한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천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새로운 조실에 설당 종우 대종사와 회주 대경 법달 대종사가 가장 적임자라 믿는다. 이에 추대하오니 불조와 역대 조사님께서는 섭수하고 증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사부대중은 조실 종우 대종사와 회주 법달 대종사를 추대하며 삼배를 올렸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조실 종우 스님과 회주 법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조실 종우 대종사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다”면서 “단지 40여 년 선방에 살았다는 이유로 조실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 같다. 앞으로 큰스님을 잘 모시고 사부대중과 함께 불국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주 법달 대종사는 “월산 스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새롭게 추대된 조실 스님을 잘 보필하며 주지, 대중스님들과 화합하며 발전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는 축사를 통해 “승가의 6가지 화합 조건 가운데 이화동균(利和同均), 이로운 것을 골고루 나누라는 말이 있다. 이 부분은 조계종 전체뿐 아니라 모든 인간 공동체의 난제로 남아 있다”며 “두 어른스님께서는 앞으로 화합을 위해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우리 모두는 새로 모신 두 스님을 하늘처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규 수석부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며, 새로운 조실 큰 스님과 회주 큰 스님을 잘 받들어 존경받는 청정한 수행공동체가 되도록 소통하고 용맹정진할 것”이라 다짐을 전했다.

설당 종우 대종사는 종우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사미계, 1984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1995년 불국사 선원장, 2002년 분황사 주지 소임을 맡은 바 있으며 2014년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 불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회주 대경 법달 대종사는 월정사 탄허 스님을 계사로 출가해 1960년 사미계, 196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경사 회주이다.

부산불교환경聯·영화사, 녹색사찰 협약

1월 7일 경내 대웅전서



부산 영도 영화사(주지 명준 스님)가 지구환경을 지키는 녹색사찰로 협약하고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서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와 영화사는 1월 7일 영화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식에는 부산부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영화사 주지 명준 스님,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해 영화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안도 스님은 “적극적인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하나뿐인 지구는 쓰레기와 오염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환경실천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다. 더 나은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사 주지 명준 스님은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불교환경연대에 감사하며 저희 영화사도 지구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4월 출범해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녹색사찰 제1호 도림사를 시작으로 마하사, 대원각사 등 12개 사찰과 학교가 협약해 녹색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영화사는 부산 녹색사찰 13호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경찰청불자회 을사년 신년법회

1월 8일 부산경찰청 법당서



부산경찰청불자회(회장 강용창)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명상 수행으로 더욱 성장할 것을 발원했다.

부산경찰청불자회는 1월 8일 부산경찰청 법당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지도 법사 법진 스님(범어사 사회국장)을 비롯해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 회장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 속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안내했다. 법진 스님은 “사람이 화를 낼 때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이며 화를 내기 전에 한계 임계점을 스스로 잘 알아차려야 한다”며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장은 “경찰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을 알아차리기 보다는 참는 데만 집중했다”며 “오늘 법문을 통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 모든 회원불자들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불자회는 매월 2째주 수요일 부산경찰청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불교신행 활동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계 “부처님 자비사상, 세상 알리자”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봉행
1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 강당서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1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부산불교계 승가와 재가 불자가 모여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부산불교계는 신년하례를 통해 “을사년 한 해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알려 희망의 빛을 전할 것”이라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1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신년하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증명 혜총 스님, 회장 정오 스님, 상임부회장 혜진 정사, 마나 스님을 비롯해 부산시 구·군 연합회 회장 스님 등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우방우 상임고문, 박형준 부산시장, 이헌승 정각회 회장,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불교는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묵념과 추모가로 시작했으며, △개회선언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고불문 △신년하례 △봉행사 △신년사 △공로상 시상 △자비의 쌀 나눔 △축사 △축원 △음성공양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5000kg을 부산시에 전달해 자비 나눔으로 한 해를 시작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백명구)와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문화 보전에 앞장서 왔으며,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진희 회장은 청년회 활동을 통해 신행 활동에 정진하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운영에 앞장서 어린이의 건전한 사회성 향상에 기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부산불교연합회는 2025년 불교문화의 꽃을 피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알리는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어 그 어느 때 보다 장엄한 향연을 펼칠 것”이라 다짐을 전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새해에는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과 역사의 상처를 뛰어넘어 화합과 상생의 대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종학림, 준제불모정화수행 입재

1월 3일 1천일 수행정진



연종학림(주지 청명 스님)은 1월 3일 경내에서 준제불모정화수행 천일결사 입재식을 봉행하며 정진을 서원했다.〈사진〉

준제불모정화수행은 333일은 선대조상의 업장정화를, 333일은 자신의 업장정화를 마지막 333일은 자손의 업장정화를 위한 기도이다.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은 천일결사 수행법을 설명하면서 “기도 수행하는 이유는 선대의 까르마를 정화하기 위해서다. 선대의 까르마가 유전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인식해야 한다”며 “대승 불교는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고 나머지 공덕은 준제보살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배우 이재용 씨는 “청명 스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온 우주와 연관이 있고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존재의 평안을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천일 후 결과물을 모두가 잘 받아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연종학림은 천일동안 매일 불자들의 수행동참비를 모아 회향일에 조계종복지단체에 보시하여 자비나눔으로 천일결사를 회향할 예정이다. 010-7311-1699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국교직원불자聯 수련회…‘인공지능 시대와 불교’ 주제

1월 3~5일 하동 쌍계사서 개최
활동 격려 위한 표창장 수여도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가 1월 3일부터 5일까지 쌍계사 문화예술관에서 불기2569년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사찰순례와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김경희 회장 등 교사 불자 90여 명이 동참했다.

수련회 입재식을 통해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표창장 전달이 이뤄졌다. 김명옥 서울지부 회장이 총무원장 표창장을, 박향림 부산지부 사무총장은 포교원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부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교육은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불법의 향기가 온누리를 뒤덮는 모습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통일신라 대학자 최치원은 쌍계사를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며 극찬을 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쌍계사의 가치를 체험하고 유익한 시간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선·교·율·차와 범패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쌍계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련회는 입재식에 이어 쌍계사 사찰문화 체험 및 예불이 이어졌으며 △생활 속의 마음 공부(법상 스님) △법화경 자아게(허은정 부산자림회 회장) △인공지능시대의 불교(보일 스님)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사찰순례는 연곡사 및 화엄사 탐방으로 진행됐으며, 화엄사에서는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에 참석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문화 강연은 박소산 동래학춤 이수자와 국악인 김도경 명창과 함께 펼쳐진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계명상마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전국 각지서 80여 명 동참



문경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경내 일원과 봉암사에서 2박 3일간 ‘새해맞이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80여 명의 동참자들은 선명상 철야정진과 봉암사 참배로 진정한 휴식을 체험했다.

‘새해맞이 선명상 템플스테이’의 백미는 선명상 철야정진이었다.

각산 스님은 법문에서 “밥 먹으면서 밥먹는 것을 알고, 걸으면서 걷는 것을 알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평안을 체험한다”고 설했다.

템플스테이는 1월 1일 봉암사 참배로 회향했다.

김민재 기자

“고고한 대성인의 길 걷는 자부심 갖자”

천태종 관문사, 주지 덕수 스님 진산법회

1월 5일 경내 옥불보전서 봉행
부주지 수산스님 취임식도 열려
덕수 스님, 대중에 정진 당부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5일 열린 주지 진산법회에서 덕수 스님이 축하 화환을 받고 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의 주지 진산법회와 부주지 수산 스님(천태종 총무원 기획실장)의 진산법회를 함께 봉행했다. 덕수 스님은 1월 2일 구인사에서 도용 종정예하로부터 관문사 주지 임명장을 받아 연임하게 됐고, 수산 스님은 새로 취임했다.

서울 관문사는 1월 5일 경내 4층 옥불보전에서 ‘14대 주지 덕수 스님, 부주지 수산 스님 진산법회 및 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서설이 내린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관문사 총무 도각 스님,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사욱진 천태종중앙청년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이현숙 서초구의회 부의장, 김성주·이형준·이은경 서초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지 덕수 스님은 취임사를 겸한 인사말에서 부주지 수산 스님과의 인연담을 소개한 후 “우리는 고고한 대성인의 길을 간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새해에는 ‘일심이 상(常)청정하라’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다 버리고 간다’는 대조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자”고 당부한 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것은 중생이 온갖 욕망에 빠져 미혹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보살님들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길 축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관문사의 모든 일에 앞장서 주신 신도회 간부들과 봉사자 등 신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모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기도하자”고 추모하면서 “우리 모두 구인사에 처음 인연을 맺을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힘차게 수행 정진하자”고 신도들의 수행을 강조했다.

앞서 부주지 수산 스님은 취임사를 겸한 법문에서 “바깥세상에 순백의 눈이 가득하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주지 취임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흰 눈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당부일 것이다”며 서설을 반겼다.

스님은 또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으로 인한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는 ‘관세음보살’ 염불은 빗자루와 같다. 집착을 쓸어내 자신의 몸을 맑게 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기도와 함께 이 훌륭한 수행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가 되자”고 전법을 당부했다.

김형동 중앙신도회장은 축사에서 “상서로운 서설 속에 봉행하는 주지 덕수 스님과 부주지 수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중앙신도회장을 맡은 지 두 돌이 되는데, 앞으로도 관문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가 정치인인데 요즘 욕을 많이 먹는다. 신도님들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후 승장 UCC 대회 시상…대상에 임한철 불자

1월 5일 호국선봉사서 시상식
경연대회서 국군장병 3명 입상
지작사 상장·포상휴가증 수여
“호국불교 전통 계기로 삼겠다”


용인 호국선봉사는 1월 5일 경내 법당에서 ‘김윤후 승장 UCC 경연대회 시상상식’을 열었다.

고려시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김윤후 승장(僧將)의 업적을 기리는 UCC 경연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임한철 불자가 선정됐다.

용인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법사)가 1월 5일 경내 법당에서 ‘김윤후 승장 UCC 경연대회 시상상식’을 열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후원했으며, 1232년 처인성에서 몽골군 장수 ‘살리타이’를 물리친 김윤후 승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호국선봉사 주지 정행 법사는 “호국불교를 떠올리면 조선시대 인물들을 주로 생각하지만, 원광 법사부터 김윤후 승장까지,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호국인물이 있었다”며 “호국인물들을 한분 한분 연구하고 조명하다 보면,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연대회 대상의 영예는 충주지역의 임한철 불자가 거머쥤다. 임 불자는 “이번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김윤후 승장에 대해 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됐다”며 “호국선봉사는 김윤후 승장의 다례재를 매년 봉행해 김윤후 승장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사찰이다. 앞으로 충주에서도 김윤후 승장을 알리는 데 공헌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연대회에는 국군장병들도 참여·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경연대회 장병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성(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 불자는 “매주 법회에 참석하며 부처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UCC 경연대회에 참석했다”면서 “호국불교와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회에 입상한 장병 3명에게는 지상작전사령관 상장과 포상휴가증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군종교구장상을 수상한 장병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또한 용인특례시장상을 수상한 이현성(용인 용신중) 학생은 이번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처인성을 직접 방문하고 김윤후 승장 관련 역내 행사들을 조사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학생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김윤후 승장의 법명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민재 기자

일붕선교종 ‘2025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8일 서울 일붕선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불기2569년 을사년을 맞아 1월 8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종정 대륜 스님과 총무원장 혜일 스님의 헌향 및 헌화로 시작되었다.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신년하례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신년의 각오를 다졌다.

혜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스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날씨가 좋지 않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참해 주신 모든 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종정 대륜 스님은 신년법문을 통해 “좋은 인연에 기대어 배우고, 이를 통해 널리 이익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어리석음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려면 좋은 인연을 가까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

정읍 내장사, 자비나눔성금 기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 등에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가 정읍지역 소외이웃을 위해 자비의 성금과 백미를 기탁했다.

내장사 총도감 무성 스님은 1월 3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이학수 정읍시장에 자비의성금 500만원과 자비의쌀 1000kg(20kg 5포대)를 전달했다.〈사진〉

전달한 백미는 정읍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 가구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무성 스님은 “작은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나눔이 소외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해 따듯한 온정을 전해준 내장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런 기부 문화가 지역사회 복지와 삶의 질을 더욱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사암聯, 제주항공 합동분양소 참배

1월 3일 천안시청 3층서



천안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3일 천안시청 3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양소를 참배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스님, 연합회 부회장 덕흥사 주지 선영 스님, 약천사 인봉 스님,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천안사암연합회 총무), 무애사 주지 광현 스님, 성월사 주지 고우 스님을 비롯해 태국사찰 분다라마사 팟차랏 스님, 베트남 사찰 원오사 주지 틧뜨엉탄 스님과 연합회 신도들이 동참했다.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은 “이를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거듭 나길 바란다”며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출강 및 통신 2025학년도 제34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전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4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봉 천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취임식 및 만수사 주지 진산식 행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신임회장으로 만수사 주지스님께서 취임하시어,
연합회장 취임 및 주지 진산식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뜻깊은 법석에 동참하시어 신임 회장 스님의 새 원력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천안 지역 불교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인연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회에는 지역 불교 지도자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무량한 공덕을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일시 : 2025년 1월 18일 (토) 오전 11시
◈ 장소 : 천안시 동남구 용곡1길 54 만수사
◈ 문의 : 041-552-9256

천안불교사암 연합회

순번	사찰명	주지	소임
01	각원사	대원	원로의장
02	광덕사	철응	원로의원
03	약천사	인봉	원로의원
04	천불사	인경	원로의원
05	연대선원	지현	원로의원
06	용화사	지용	원로의원
07	만수사	도언	회 장
08	정화사	경천	부회장
09	도광사	도공	부회장

순번	사찰명	주지	소임
10	쌍용선원	자장	부회장
11	고불사	능엄	부회장
12	무애사	광현	부회장
13	광덕사	혜광	감 사
14	덕흥사	선영	교 무
15	안양암	탄형	포 교
16	극락정사	일양	재 무
17	태학사	법연	총 무

천안불교사암연합회 · 도언 합장

日 해충 방제 기업, 실험용 곤충 위령재 봉행

어스제약, 매년 蟲 위령재 실시
인류 위생 기여 곤충 넋 위로
"연구과정, 기업윤리 재고 시간"
숲 생명 존중 마음 기반 진행

김민재 객원기자


곤충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어스제약 연구원.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해충 방제 기업 '어스제약(Earth Corporation)'이 봉행한 실험곤충 위령재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대표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어스제약의 실험곤충 위령재 봉행 소식을 전했다.

어스제약은 1892년 창립 이후 다양한 살충 제품을 개발해왔다. 이를 위해 해충을 사육하고 연구하며 개체별로 특화된 살충제를 제작한다. 주요 공정에서는 바퀴벌레 약 100만 마리, 파리 약 10만 마리 등 다양한 해충이 사육돼 연구에 쓰인다. 태국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연구와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실험은 살충제 개발의 필수 과정이다.

실험 곤충 위령재는 실험에서 희생되며 인류 위생 개선에 기여한 곤충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로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위령재는 효고현 아코시의 묘도지(妙道寺)에서 진행됐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곤충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의식에는 바퀴벌레, 빈대, 모기 등 곤충 9종의 사진이 올려졌다. 묘도지 주지 스님이 경전을 독송하는 가운데 어스제약 연구진을 비롯한 90여 관계자들은 헌화하며 곤충들의 희생을 기렸다.

코보리 토미히로 어스제약 책임연구원은 "위령재는 단순히 곤충의 넋을 기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연구 과정과 기업 윤리를 되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인류 위생 개선을 위해 희생된 실험곤충에 감사를 전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제품 실험과정에서 연구진들이 곤충을 도구로 여길 수 있으나 위령재를 통해 곤충들의 희생에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어스제약은 '생명존중'과 '지속가능성'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 실험 곤충 위령재는 이러한 철학의 실천 중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해충을 제거해야할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며 경영 방침을 구축하고 있다. 어스제약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희생을 존중하며 과학적 연구와 윤리적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곤충 또한 업보에 따라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어스제약의 곤충 위령재 전통이 이어져왔다. 또한 일본에는 '충공양(虫供養, 무시구유)'라는 곤충 추모 행사가 존재하며 인도와 태국에도 유사한 문화가 있다. 이러한 전통은 곤충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다.

어스제약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명의 희생을 기리며 단순한 방제 기업을 넘어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日 사찰서 만나는 '불교×현대기술' 향연

안드로이드 관음 설법
'드론 25 내영불' 등


안드로이드 관음상 '마인더' 앞에서 합장한 덴쇼 스님.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불교와 현대 최신 기술을 접목해 불교 홍포 시도를 거듭하는 일본에서 새해를 맞아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 선보여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불교문화의 고도로 불리는 교토 사찰들의 신기술 도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교토시 중심부의 고다이지(高台寺)에는 높이 195cm, 무게 60kg의 알루미늄 불상이 있다. 실리콘 소재로 덮인 얼굴과 손 이외에는 모두 금속 부품이 노출돼 있어 불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조용히 깜빡이는 눈, 두 손을 합장하는 모습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마인더'라는 이름의 불상은 2019년 처음 개발돼 대중에 공개된 '안드로이드 관음상'이다.

관음상은 내장된 카메라로 참배자들을 확인하고 법문한다. 법문은 사찰에 속한 임제종 켄닌지파 스님들의 경전 풀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마인더를 고안한 고다이지 전 집사장 고토 덴쇼 스님은 "직접 눈을 맞추고 말을 걸어오는 불상이 있다면 불법이 대중들에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불상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연구 권위자 이시쿠로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와 함께 개발한 안드로이드 관음상은 지금까지 4만여 참배자들에게 법문을 전했다.

덴쇼 스님은 "불교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편과 근기에 맞는 설법으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불상이 모두의 선지식이 돼 삶의 고뇌에 해법의 실마리를 전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안드로이드 관음상 활용을 이어갈 것을 알렸다.

또한, 17세기 초 창건된 료간지(龍岸寺)는 불화 속 이미지를 현실에 재현했다. 아미타불과 25보살이 염불행자를 극락정토로 맞이하러 온다는 '아미타25보살 내영도'를 드론으로 구현한 것이다.

'드론 내영불' 프로젝트는 료간지 주지 이케구치 류호 스님과 미우라 요잔 불상조각가의 의기투합에서 시작됐다. 요잔 씨는 "과거라면 기술적 한계로 천장에 매달거나 벽에 부착했지만, 현대기술이라면 불상을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제불을 본따 경량수지제로 복제한 불상을 손바닥 크기 드론에 태워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드론 내영불은 현재 염불철야정진 등 다양한 일본 불교 행사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후 25보살상을 모두 갖춰 지난해부터는 불상에 개금해 금빛 내영도를 구현해냈다. 류호 스님은 "불자들 중 장례식장에서도 띄워주길 바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불교의 가르침과 포교법 중 100년 전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던 것이 지금은 선례로 남은 것이 많다"며 "앞으로 100년 후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지 기대된다"고 정리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베트남 '맨발의 순례자' 서적 출판 승인 지연

틱민투 발언집 3달째 승인 지체


인도를 향해 도보순례를 진행 중인 틱민투는 현재 태국을 순례 중이다. 사진출처=RFA

'맨발의 순례자'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베트남 불교 수행자 틱민투(Thch Minh Tu)의 저서가 3달째 출판 승인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다.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RFA)'는 1월 3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자세한 상황을 전했다.

'틱민투'라는 법명을 가진 불교수행자 레안투(Le Ahn Tu)는 2017년부터 6년간 삭발한 머리, 수선한 분소의 3벌, 낡은 발우만을 들고 베트남 전역을 순례하며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출가자가 아니며 스스로 수행자라고만 소개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사회안전문제 발생 방지를 이유로 그를 일시 구금한 바 있다.

황논 베트남 카이탐 문화주식회사 이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틱민투가 유튜브를 통해 불교에 관해 토론한 내용을 담은 책 〈바람에 맞서는 향기〉 출판을 위해 지난 9월 베트남 정보부에 허가 요청과 보증금을 접수했다"면서 "당국은 접수 14일 이내 책의 출판 가부를 결정해야하나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밝혔다.

황논 이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바람에 맞서는 향기〉는 지난 6월 초, 베트남 당국이 베트남 드어티엔후에성에서 순례하던 틱민투와 지지자들을 해산시킨 직후 다낭의 출판사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라며 "여태 당국은 출판 가부에 대한 공식 서한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 누가 책 출판을 금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사안은 출판사의 권한은 물론 출판, 인쇄, 유통 당국의 권한도 넘어섰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베트남 당국이 시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왜 틱민투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전달돼 사회적 공감 얻기를 막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현재 틱민투는 지난해 11월 말 인도로 향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해 현재 라오스를 통과,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기근·식량위기에 미얀마 불교도 급증

식량 원조 제공 불교 귀의↑
생존 위한 개종 사례 증가

극심한 기근과 식량 위기를 겪는 미얀마 나가 자치구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미얀마 언론 '미지마'는 지난해 12월 22일 나가 자치구 주민 사이에서 나타난 불교 개종 성행 소식을 보도했다.

미얀마 북서부 나가 구릉 일대의 나가 자치구 사팔로우 아 눈트 곤 마을(Sappalaw Ah Nount Gone) 주민 400여 명이 최근 식량을 제공하는 불교에 귀의하고, 타종교로 개종하면 마을을 떠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나가족은 19세기 영국인 선교사의 영향으로 인구의 90%가 기독교도다.

사팔로우 마을은 지난 3년간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해 심각한 기근과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사다마 조티카다자 바단타 판디타 마을대표는 흉작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미얀마 제272보병대대가 1천만 카트(한화 약 690만원)에 이르는 쌀, 콩, 식용유, 소금, 찻잎 등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기근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아미오타 흐루토 나가 자치구 전 상원의원은 "자발적으로 불교로 개종한 사례도 있지만 기근과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는 마을대표들이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불교 개종을 권유한다"며 "식량 지원을 받은 주민 중 일부는 기독교로 재개종을 원하지만 마을 추방을 꺼린다. 대부분의 불교 개종 주민은 명목상 불자로 도시 공무원들만이 불교 수행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근으로 인한 종교 개종 사례는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필리핀 등지에서는 특정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 속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 같은 현상은 기근, 생계, 안전 문제 등이 종교 귀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재 객원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일제강점기 불교순회강연, 불교청년운동 견인”

김경집 교수, 불교학보 106집 게재 논문서 주장

1920~30년대 강연단 활동 조명
조선불교청년회가 강연 주도해
지식계발, 新사상 전파 등 이뤄
지역별 불교청년회 창립 이끌어
시대 비판 강연에 일제 탄압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강점기인 1920~1930년대 이뤄진 불교계 순회강연단의 활동이 지역 불교청년운동을 견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집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불교학보〉 제106집(동국대 불교학술원 발간)에 게재한 ‘일제강점기 불교계 순회강연단 계몽활동이 지방불교청년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불교순회강연단 활동 배경과 전개 등을 조명했다.

김 연구교수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통치로 통치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식민지 체재를 극복하고 자주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계몽운동이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불교계도 1920년 6월 조선불교청년회를 설립하며 시대 흐름에 동참했다. 조선불교청년회는 1920년 10월 순회강연단을 조직하고 전국을 돌며 불교 강연을 시작했다.

순회강연단은 호남, 부산, 대전, 경의·경원선 방면으로 전국을 구별하고 각각 방면마다 2명의 강사를 배정해 강연을 진행했다. 첫 순회강연은 19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26일 동안 진행됐으며, 총 38곳에서 강연이 이뤄졌다.

1921년에는 재일조선불교청년회가 순회강연단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순회강연단 제1대는 호남 방면을, 제2대는 경기·경부 방면을 담당했다. 이들은 주요 도시와 사찰을 방문해 1일 1회 강연을 약 30여 일 진행했다.

두 불교청년단체는 연합해 순회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선불교청년회와 재일조선불교청년회는 1922년 7월 연합순회강연단을 결성하고 제1대 경부·경의선, 제2대 경부선, 제3대 호남선, 제4대 경원선으로 방면을 나눠 순회강연을 다녔다.

김 연구교수는 “순회강연단의 활동이 인기가 좋아 특별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실제 청주에 소재한 여러 단체의 요구로 1922년 8월 16일 오후 8시에 특별강연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제의 탄압도 있었다. 일제는 순회강연단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강연 내용을 감시했다. 김 연구교수는 “일제 경찰은 강연장의 상주하며 강연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실제 세계정세와 민족의식 강조를 골자로 한 강연을 펼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순회 강연은 각 지역 청년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이는 지역별 불교청년회 결성으로 확인된다. 순회 강연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불교청년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1921년엔 7곳, 1922년엔 6곳이 창립됐다. 강연회 활동이 끝난 뒤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1923~1925년에는 7곳의 청년회가 조직돼 활동했다.



중앙불전 제1회 하계 순회강연단 단원들의 기념촬영. 1929년 7월에 촬영됐다. 1920년 시작된 불교 순회강연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출처=민족사刊〈한국불교 100년(1900~1999)〉

순회강연단 이후 전개된 불교청년운동으로 인해 1930년 무렵까지 10곳의 지역 불교청년회가 창립됐다.

김 연구교수는 “설립 추이로만 본다면 일제강점기 전국에 설립된 지방 불교청년회는 순회강연단 활동과 영향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20여 곳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40여 곳 중 50%에 이르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시간 많은 지역에서 불교청년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사찰의 후원으로 중앙에서 공부하던 학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들은 중앙에서는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연고 지역과 사찰에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 조직 설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불교청년운동의 영향으로 창립된 지역 불교청년회는 연극을 통한 포교와 계몽운동, 지역 야학소 및 학교 운영, 스포츠 활동, 빈민 구제 등을 전개했다.

김 연구교수는 “연극은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며, 문화적인 성과가 있어서 자주 행해지는 계몽운동이었다”면서 “내용은 부처님 생애와 불교의 인연 과보에 대한 것이 많았지만, 그 속에 사회적 이슈들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방 불교청년회의 계몽활동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며 지역민의 의식 전환을 견인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계몽운동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불교계 활동 역시 지역 대중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 범음구, 큐레이터 생생 해설로 듣는다

國博 새해 첫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이 올 1월에도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불교 범음구’와 관련된 전시품을 큐레이터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관람할 수 있어 주목된다.

새해 첫 달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총 12회 진행되는데 범음구(梵音具)를 비롯해 말갖춤, 문양전, 기와, 나전칠기, 무기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두 개의 특별전에 대한 설명이 총 4회 진행된다.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전시 기간: 2024.11.26~2025.3.3)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매주 3회에 걸쳐 마련됐다. 동·식물, 인물 등 형태를 본떠 만든 상형청자를 감상하며 고려 청자만의 미감과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전시 기간: 2024.11.30~2025.3.3)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셋째 주에 열린다. 1900년 전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등의 전시품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첫째 주에 ‘말갖춤으로 보는 가야문화’가 가야실에서, ‘부여 외리 문양전’이 백제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서화실에서는 ‘강세황의 자화상’을 주제로 조선 후기 문인 서화가이자 평론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자화상에 대한 궁금증을 나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월 큐레이터 대화에 소개되는 천흥사 동종.

둘째 주에는 ‘한국의 기와’가 기증실에 마련됐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와당(瓦當) 컬렉션인 유창종, 이우치이사오 선생 기증품을 큐레이터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가야와 왜의 교류’는 가야실에서 진행된다.

세 번째 주에는 더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됐다. 조선실에서 열린 ‘조선의 시한폭탄 비격진천뢰’는 임진왜란 때 공격용 무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다. ‘빛의 예술 나전칠기’(목칠공예실)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나전칠기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속공예실에 전시되는 ‘불교 범음구’에서는 천흥사 동종과 쇠북(금고)을 살펴보며 불교의식에 사용됐던 범음구(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소리를 내는 도구)를 깊이 있게 알아본다.

김내영 기자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물서 국보로 승격돼

국가유산청 1월 9일 지정공고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 소재한 보물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후기 충청과 호남 지역에 성행한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는 점, 2층 탑신의 동·서·남·북에 조각된 사방불의 머리 위 장식이 고려 후기의 불상에서만 등장하는 동그란 모양이라는 점 등의 세부 표현기법으로 미루어보아 고려 후기(14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2중으로 조성된 석탑의 기단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면서 “석탑 지대석에는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모양을 일컫는 해목형 안상(蟹目形 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석탑에서 최초로 발견된 사례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보로 지정한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초기불교와 불교윤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불교윤리학 입문
불교는 우리 시대가 대면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전통적 주제부터 AI나 유전자 복제 등 최신 주제까지, 명료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로 풀어낸다.
데미언 키온 저, 조은수 옮김/신국판/무선/216쪽/값 15,000원

시카고대학 출판부의 유명 시리즈!
무에 대한 탐구
무無는 불교의 본질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대 비평이론에서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데, 왜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에서 불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가?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옮김/408쪽/값 25,000원

한국불교 현대사의 산 증인, 김재영 법사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60년 동안의 신행과 전법 활동,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온전히 담긴 이 책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현대불교사의 소중한 기록이다!
김재영 지음/신국판/무선/5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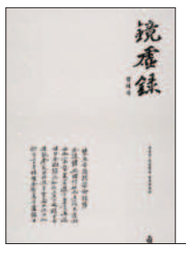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6	반야심경수행법강의	남회근,황념조	마하연
2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금강경에서배우는성공비결108가지	이광복 지음	청어	8	닦는마음밝은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지음	용화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그핵심을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5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아비담마길라잡이(1)아비담맛타상가하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한국 선불교의 빛나는 두 별을 만나다

한국 선불교의 빛나는 두 별을 두 권의 책으로 만난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와 한국불교의 순수성과 가풍을 정립한 만공 선사다. 경허록 · 만공법어 편찬위원회가 경허 선사의 어록을 정선한 〈경허록〉과 만공 선사의 남다른 선지를 엿볼 수 있는 〈만공법어〉(개정 증보판)를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경허록

경허성우, 경허록 · 만공법어 편찬위원회 지음
불광출판사
2만8천원

‘무애’ 삶으로 한국 선불교 중흥

경허 선사 진면목 볼 수 있는 어록
禪 핵심 작품 선별 현대적 언어로
억불시대서 선불교 선등 다시 밝혀
전국에 선원 열어 선수행 정통확립
비방 · 칭찬에 일절 동요없이 무애삶

“술도 혹 방광하고 여색도 그러하니 / 탐진치 번뇌 속에서 나귀의 해를 보내노라 / 부처와 중생을 나는 알지 못하노니 / 평생토록 술 취한 중이나 되어야겠다”

경허 선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경허록〉은 경허 선사가 남긴 글 가운데서 선(禪)의 요지를 담은 글들을 선별하여 새롭게 편찬한 조사 어록이다. 기존에 간행됐던 〈경허집〉(선학원본)과 〈경허화상집〉(한암 필사본)에 수록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면서 원문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보다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수정·보완했다.

책은 ‘경허록 상’과 ‘경허록 하’로 구성했다. 상에서는 상당, 시중, 시인, 대기, 서장, 가송, 시게로 분류했고, 하에서는 영찬, 문, 행장, 한글 가사로 분류했다.

경허 선사는 한국 선불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선사는 긴 억불의 시대에서 쇠락일로를 걷고 있던 선불교의 선등을 다시 밝히며 그 맥을 지켰다. 전국에 수많은 선원을 열어 선수행의 정통을 확립하고, 당대 여러 큰스님의 행장·영찬·사찰 창건기 등을 남기는 등 불교의 명맥을 잇기 위해 진력했다. 명실상부한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신장이 크고 용모는 옛날의 위인들처럼 걸출했으며, 성품은 과감하고 음성은 종소리처럼 우렁찼으며, 변재가 좋아 설법에 뛰어났다. 세상의 비방과 칭찬에는 일절 동요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었다. 그래서 술과 고기도 마음대로 마시고 먹었으며, 여색에도 구애되지 않은 채 걸림이 없이 유희하여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하기도 했다. 책은 “이는 이통현·종도와 같은 옛사람들처럼 광대한 마음으로 불이법문을 증득하여 자유로이 초탈한 삶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적고 있다.

모두에 소개한 스님의 시는 그런 스님의 삶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선사는 수행에 철저하여 안거할 때, 음식은 겨우 숨을 붙일 수 있을 정도만 먹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앉아서 침묵하고, 좀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진했다. 천장암에 살 때에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누더기 한 벌로 살았는데, 갈아입지 않아서 여름엔 온몸에 모기와 파리가 꼬이고, 겨울엔 이와 서캐가 가득하여 피부가 다 헐어 가는데도 선사는 고요함을 잃지 않고 산악처럼 앉아 있었다. 하루는 뱀이 선사의 몸에 올라 꿈틀꿈틀 기어가는 것을 대중이 보고 깜짝 놀라 말해 주었으나 선사는 개의치 않으니, 뱀이 스스로 물러갔다.

경허 선사는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아홉 살 때 모친을 따라 상경하여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들어가 계허 스님을 은사로 삭발 수계했다. 이후 당대 이름난 강백이었던 만화 스님 아래에서 불교 경론을 배우고, 유가와



경허 선사 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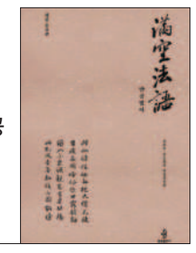
만공 선사 진영.

노장 사상에 이르기까지 두루 공부했다. 선사가 스물세 살 때 동학사에서 강석을 열자 수많은 학인이 몰려들었을 만큼 선사의 학문은 이른 나이에 이미 출중했다.

선사는 전염병이 창궐한 마을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된다. 숨과 숨 사이에 죽음이 있음을 본 선사는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 참선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은 선사의 ‘여사미거마사도래화’ 화두를 든다. 깨달음이 있었고, 이후 선사의 삶은 ‘무애’였다.

경허 선사의 가르침은 내면에 자리한 불성을 깨달아 어디에도 걸림 없는 자유자재한 삶을 보여준다. 책은 구한말 한반도를 유행하며 걸림 없는 삶을 살다간 경허 선사의 삶과 사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허 잇고 일제서 한국불교 지켜



만공법어

경허성우, 경허록 · 만공법어 편찬위원회 지음
불광출판사
3만원

선 요지 등 만공 선사 가르침 담아
거량 14편 등 추가된 개정 증보판
경허 법 이어 한국 선불교 맥 잇고
한국 불교 말살 획책 일제 꾸짖어
재단법인 선학원 수좌공제회 설립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만공 선사는 경허 선사의 법을 이어 쇠퇴하는 한국 선불교의 맥을 잇고 정통 간화선을 선양했다. 선사는 조선 총독부의 한국불교 말살 정책에 반발하여 우리 불교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재단법인 선학원을 설립하고, 수좌공제회를 설립해 수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많은 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가풍을 정립했다.

이번에 발간된 〈만공법어〉는 1968년에 발간된 〈만공어록〉과 1982년에 발간된 〈만공법어〉의 개정 증보판이다. 간행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거량 14편과 게송 12편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기존 내용 중 원문의 오탈자와 오역을 바로잡았다.

‘상당법어’ ‘거량’ ‘게송’ ‘서문’ ‘발원문’ ‘수행찬’ ‘법훈’ ‘행장’ ‘부록’으로 구성된 책에는 불교와 선의 주요 화두에 관한 만공 선사의 가르침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경허 선사의 제자로서 선불교의 법맥을 계승하고 선풍을 진작시켰던 선사의 삶과 사상, 근현대의 선사 가운데 격외의 선지를 가장 자유롭게 구사했던 선사의 경지가 가감 없이 드러난다.

만공 선사는 1884년 서산 천장사에서 태허 스님을 은사로, 경허 스님을 계사로 하여 사미계를 받고 월면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스물세 살이던 1893년에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고 공부를 시작했다. 스물다섯 되던 해 7월, 선사는 바라보던 벽을 홀연히 걷어내고 일원상을 보게 된다. 하지만 선사는 흐트러짐 없이 의심을 유지하며 하룻밤을 지내던 중 새벽 쇳송 때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를 외다가 문득 법계성을 깨달아 화장찰해가 홀연히 열렸다. 오도송이 남았다.

“텅 빈 산의 기운이 고금 밖인데 / 흰 구름 맑은 바람 스스로 가고 오누나 / 무슨 일로 달마가 서천을 건너왔는가 / 축시엔 닭이 울고 인시에 해가 오르네”

선사는 스물여섯 살 되던 해, 마곡사에서 경허 선사와 다시 만난다. 선사가 그동안의 공부를 고하자 경허 선사의 점검이 있었다. 만공의 공부는 경허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만공은 스승으로부터 화두 하나를 다시 받는다. 조주 스님의 무자였다. 무자의 의심이 깊어가고 있을 때였다. 범어사 계명암선원에서 하안거를 마친 만공 선사는 잠시 양산 통도사 백운암에 걸망을 걸었다. 마침 장마를 만나 보름 동안 꼼짝하지 못했는데, 우중의 새벽 종소리에 선사는 홀연히 다시 깨닫는다. 선사는 서른한 살 되던 1901년, 본사로 돌아와 머무르면서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면서 소요자재했다. 3년 뒤 2월에, 만공은 다시 스승 경허 앞에 앉는다. 만공은 그동안의 공부와 보림을 다시 스승께 고한다. 스승은 인가했고 전법게가 남았다. “구름 달 시냇물 산 곳곳마다 같음이 / 수산 선자의 대가풍이여 / 은밀히 무문인을 분부하노니 / 한 조각 기틀 권세 살아 있는 눈 속에 있구나” 이어 스승은 만공이라 사호하면서 “불조의 혜명을 자네에게 이어가도록 부촉하노니 불망신지하라”고 이르고 길을 떠났다.

1937년 3월 11일에 열린 조선불교 31대본산 주지 회의에 만공 선사는 마곡사 주지로 참석했다. 이날 선사는 “조선 불교는 일본 불교를 본받아야”한다며 한국 불교 말살을 획책하는 총독 남차랑을 ‘정교분립 선언’으로 크게 꾸짖었다.

광복 다음해인 1946년 10월 20일 만공 선사는 목욕 단좌한 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네와 내가 이제 이별할 인연이 다 되었네그려” 하며 큰 웃음 후에 입적했다.

〈만공법어〉는 선으로 깨달음을 닦아 나가는 대중이 자신의 현재를 점검하는 거울로 삼기에 좋은 책이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이
꼭 읽어야 할 인생 필독서!





Sex & Love of Buddha



불교 섹슈얼리티로 재탄생한
붓다와 여성들의 감동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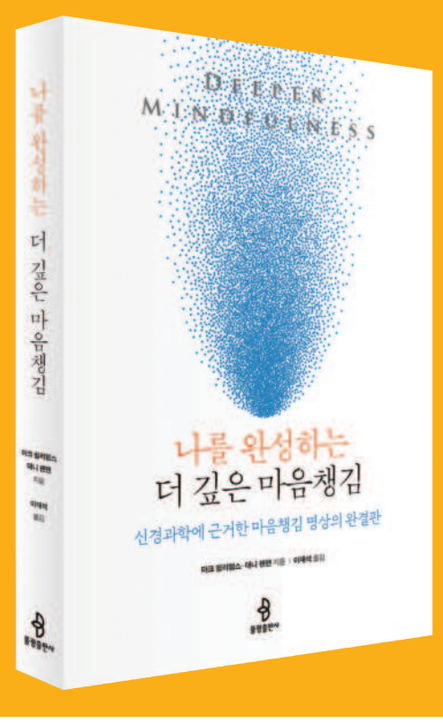


붓다, 성과 사랑을 말하다
현경 • 이미령 • 옥복연 외 6명 지음 | 384쪽 | 23,000원

★★★★★
“목숨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라.” – 루비 왁스(영화배우)
“마음챙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책.” – 릭 핸슨(심리학자)
★★★★★

사소한 불행조차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8주간의 새로운 감정 다루기 연습!

“괴로운 시간이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듯 보여도 실제로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심리적 역동에서 비롯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심리적 과정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을 끌고 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 본문 중에서



나를 완성하는 더 깊은 마음챙김
신경과학에 근거한 마음챙김 명상의 완결판
마크 윌리엄스·대니 펜맨 지음, 이재석 옮김 | 310쪽 | 값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일상 속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1. 2025년 생명나눔, 이렇게 달립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1월 8일 신년 간담회
2025년 주요 사업 계획 발표 · 목표 설정
올 한해 정기 후원자 2025명 모집 추진
해외 지원 사업 활성화 · 문화교류로 연대
스포츠 캠페인으로 나눔문화 확산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에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부터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진력해 왔다.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종교계 대표 공익법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에 나선다. ‘정기 후원자 모집’ ‘스포츠 캠페인’ ‘해외 지원 사업 활성화’ 등 생명나눔실천본부의 2025년 올한 해 사업과 목표를 꼼꼼히 살펴본다.

생명나눔 정기 후원자 모집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설립 이후 31년 동안 의료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나눔과 자비의 가치를 실천해왔다.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불우이웃돕기, 긴급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의 나눔과 자비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넓은 사랑과 온정을 실천하고자 ‘생명나눔 2025 후원 캠페인’을 통해 연말까지 2025명의 정기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긴급 의료비 지원, 주거와 생계 지원, 정서적 위로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후원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나눔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면 스님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 사람의 도움은 작은 변화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큰 기적을 만들수 있다”면서 “‘생명나눔 2025 후원 캠페인’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삶의 큰 희망으로 다가감과 동시에, 나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지원 사업 활성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1년 ‘글로벌 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의약품과 물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단체인 마하무용단과 협력해 진행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무용 교육과 공연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의 문화 교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상국가는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예정)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의약품 및 물품을 지원하고 마하무용단이 한국 전통무용 교육과 청소년 문화교류를 담당한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를 상대로 물품을 전달, 해외 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7월 말 직접 현장에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 법을 따르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일정

4월 26일	연등회
4월 27일	전통문화마당
5월 19일	자선골프대회
6월 6일	천도재
6월 16일	해외지원사업
9월 13일	걷기명상
10월 18일	산사음악회
11월 22일	자선음악회
12월 2일	불우이웃돕기

※ 상기 일정은 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생명나눔 스포츠 캠페인 방안 모색

이와 함께 2025년 스포츠를 매개로 생명나눔 활동을 한층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명나눔 스포츠 캠페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골프, 파크골프, 야구,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나눔 문화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기기증 및 나눔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 전액은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일면 스님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일면 스님은 1월 8일 서울 본부에서 진행된 2025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푸른 뱀은 주변을 잘 살피고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면서 “60년 만에 돌아온 푸른 뱀의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나눔이 지혜로운 변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하겠다”면서 “늘 최선을 다하며 불교계에서 부처님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성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 전국 사찰 및 대학교, 시민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333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2399명을 모집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장기기증희망등록 모집 목표 100%를 달성했으며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또한 109%를 초과 달성했다. 현재까지 누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8만3000여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5만7000여명에 달한다.

꾸준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모집으로, 2024년 한 해에만 52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큰 성과다. 이는 12개 간호대학과 함께한 ‘약속 프로젝트’를 통해 조혈모세포의 의미와 필요성을 널리 알린 덕분이다. 캠페인과 사후관리 활동을 연계해 기증자와 환자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본부에서 매달 600여 부 이상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 〈행복한 빈손〉 등을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전하고 치료비를 모금, 2024년 한 해에만 40명의 환자에게 800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금가지 생명나눔에서는 1180명에게 43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틀니 무료지원 제도, 청소년 자살예방 연극 등을 실시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끊이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승가의 존재와 역사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700년의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비구니스님들의 존재와 역할을
한 권의 책으로 조명한 책!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 비구니사를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책!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비구니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책!

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 집필. 전영숙 | 450쪽 | 35,000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사禪師 ‘일엽’으로!

구술. 월송스님 |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❸ 삶의 변화 위해선



▶한줄 요약
선명상은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업의 그물 벗어나려면 '비움' 실천하세요

"

마음 속 고정관념을 놓아버려야
비우고 나누면 저절로 복을 지어
선명상, 비움과 나눔의 실천방법
하루 5분 정진, 업에서 벗어난다

"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마음(삶)을 바꾸기란 참으로 어렵나니
업(쌓임)이라는 그물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복(도움)과 지혜(비움)의 힘(수행)으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어라.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감정이 앞서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습관과 업의 영향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 그물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행위, 그리고 전생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업의 본질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쌓임으로 인해 삶의 조건이 이미 결정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을 함께 만들어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움의 실천'입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집착과 '나'라는 고정관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복을 쌓는 것과 연결됩니다. 복은 잘못된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자 에너지로,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복을 쌓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는 마음', 즉 보시(布施)입니다. 보시는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주는 도움, 그리고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걸림 없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선명상은 이러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명상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욕망과 경쟁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선명상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중심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간순간 멈추어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고요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의 힘으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 여정을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의 명상]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뜨기 위함이고
바람이 부는 것은 잠잠해지기 위함이다.
어둠은 밝음의 씨앗이고
절망은 희망을 위해 기꺼이 과거가 되어 준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쪽의 나타남이 다른 쪽의 나타남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이 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태어남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고, 즐긴 만큼 괴로움이 뒤따릅니다. 얻은 만큼 잃게 되고, 짜게 먹은 만큼 갈증이 이는 것처럼, 삶의 모든 일에는 대가와 후유증이 따릅니다.

이처럼 자연과 마음의 이치는 분명하지만, 중생의 어리석음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만큼, 욕심 부린 만큼의 과보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시점이 언제일지 가늠하지 못하기에 쉽게 간과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날지, 아니면 10년, 50년 후, 혹은 내생에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을 종종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을의 열매가 겨울을 지나 봄에 싹을 틔우듯, 인과의 법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반드시 실현됩니다.

지금 행복하다 해서 늘 행복할 수는 없고, 지금 불행하다 해서 그 불행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중생의 업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과 장소,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탐진치(貪瞋痴),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은 모든 중생에게 존재하며,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의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고락의 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과의 순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수행법이 바로 선명상입니다. 선명상은 삶의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은 업의 그물에서 벗어날 첫걸음이 됩니다. 선명상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삶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선명상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하고, 삶의 복잡한 문제를 더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선명상을 통해 어둠 속에서 밝음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무게와 질을 가진 희망과 절망의 업을 받더라도, 우리는 희망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어둠은 밝음의 씨앗이 되고, 절망은 희망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명상의 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이치를 되새기고, 삶의 희망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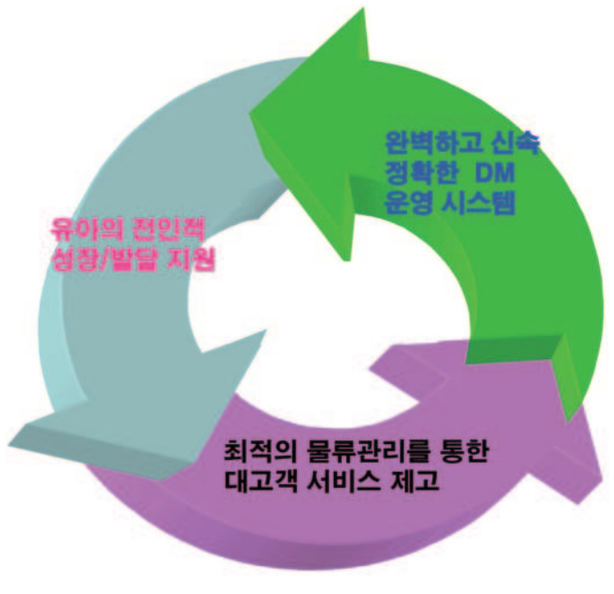
인과의 순리를 이해하고, 현재의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5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그대는 자비보살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 ·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

“중생 구제해 성불…소외이웃의 지장보살 되겠습니다”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사진 오른쪽)과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사진 왼쪽)은 ‘다나 밥차’ 봉사자로 함께한 지 3년째다. 스님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식봉사에 앞장섰다.

(사)다나 종로 우정공원 노숙인 배식봉사
혜민 스님 3년째 봉사 참여하며 자비행
지난해 12월엔 방한용품 1천만원 지원도

혜민 스님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것”
고담선원 신도들도 동참하며 ‘자비 연대’
일당 모아 밥차에 기부하는 노숙인 ‘감동’
탄경 스님 “나누는 행복이 전염되길 기원”



탄경 스님은 나눔물품을 손수 옮기며 다나 밥차 배식봉사를 진두지휘했다.



혜민 스님은 노숙인들에 ‘다나 밥차 나눔봉투’를 전하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중생이 있는 세상 곳곳에 빠짐없이 나아가시어 구원의 손길 멈추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지장님 본받아 오늘은 내가 지장이 되리니….”

저녁 어스름이 내린 서울 종로 조계사 우정공원 앞. 매서운 찬바람 속 사람들의 나직한 음성이 울린다. 따듯한 밥 냄새까지 피어오르는 여기는 ‘다나 밥차’ 배식봉사 현장.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매주 한 번,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봉사자들은 시작 전 〈지장경〉을 독송한다.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심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사)다나(다함께 나누는 세상)를 이끄는 탄경 스님과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도 〈지장경〉을 읊으며 자비희사의 뜻에 함께 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영하를 기록한 추운 날씨임에도 10여 명의 봉사자가 조계사 앞 다나 밥차에서 식사 마련에 분주했다. 탄경 스님은 무거운 물동이와 물품 상자를 직접 옮겨가며 다나 밥차 배식 준비를 진두지휘했다. 스님은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많이 모인 후원 물품들을 뿌듯하게 바라봤다.

“평소에는 밥과 찌개, 간식 정도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갑진년 연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과일, 빵 등을 보시해주셔서 식사와 후원 물품 등 10가지를 연말 겸 새해 선물로 나눌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해요.”

선물에는 겨울 방한용품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혜민 스님이 직접 준비했다. 혜민 스님은 지난해 12월 17일 다나에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봉사 현장 한 켠을 빼곡히 채운 방한용품들을 본 혜민 스님은 “노숙인 분들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나의 후원이 원하는 곳에 지원되는 걸 볼 때마다 자비나눔의 원력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곧바로 혜민 스님은 두 팔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스님과 봉사자들은 일사분란하게 200인분의 밥과 찌개를 나눠 담을 봉투를 준비하고 빠진 건 없는 지 수차례 점검했다. 혜민 스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다나 밥차 나눔봉투’를 노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듯한 밥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

다나 밥차 나눔봉투를 받은 노숙인들은 혜민 스님에게 합장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나 밥차 배식봉사는 오후 6시에 시작해 저녁 7시를 조금 넘겨 모두 마무리 됐다.

자비희사 원력의 인연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이 처음 다나 밥차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방송에 자주 등장하며 부처님 법을 설파하는 모습으로 익숙한 혜민 스님이 길에서 하는 고생스러운 배식 봉사를 잘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여러 걱정이 앞섰지만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에게 선뜻 노란색 다나 봉사자 조끼를 내주었다.

“사실 1~2달만 지나면 ‘스님 저 못 하겠습니다’ 하실 줄 알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다나 밥차가 야외 봉사다보니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배식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번 온화하지만은 않거든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감사해서 받아들였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3년째 봉사자로 나서주고 계십니다. 고담선원 신도 분들도 함께 동참해 줘 더욱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혜민 스님의 자비나눔 원력은 다나 밥차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종교인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스님은 이웃종교계와 함께 쪽방촌과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봉사활동이 손에 익을 무렵,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 소식을 접했다. 그곳이 ‘다나’임을 알게 된 혜민 스님은 수소문해 탄경 스님의 다나 밥차를 찾았다. 스님은 탄경 스님이 가진 자비나눔의 원력과 원칙을 듣고 감화돼 다나 밥차 봉사자로 나섰다.

“탄경 스님은 누군가 물품이나 금전을 기부하면 나중을 위해 비축하거나 남겨두는 것 하나 없이 곧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십니다. 그것이 기부자가 바라는 것이고 원활한 봉사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비나눔’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서는 스님께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년여 간 다나 밥차 배식봉사에 참여한 혜민 스님을 보고 탄경 스님은 그 끈기와 인내심에 감동했다. 야외봉사인 다나 밥차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엔 찜통 속에서, 겨울엔 냉골 안에서 일해야 했다. 그런데도 세 번의 겨울을 맞이하는 동안 혜민 스님은 다나 밥차 봉사자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탄경 스님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초심을 이어가는 혜민 스님을 보고 이런 분이라면 대중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상찬했다.

봉사활동 3년차인 혜민 스님은 다나 밥차 현장에서 일종의 ‘연대감’을 느꼈다. 어떤 음식을 나눌지 고민할 때, 음식을 만들고 나눌 때 등등.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 혼자 했다면 힘에 부쳐 금방 포기했을 일들임에도 함께 했기에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혜민 스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법당에서 다같이 기도할 때 신심이 더욱 커지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함께해야 자비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난 속 자비나눔의 씨앗

다나 밥차 배식봉사에서 스님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무료급식소에서 만났던 노숙인들이 다나 밥차 배식 현장에서 다시 만나 목소리 높여 싸우거나, 이미 배식을 받고는 더 달라고 다른 손을 내미는 이가 있기도 하다. 이럴 때마다 탄경 스님이 신장(神將)처럼 나서 저지한다.

탄경 스님은 “혼란에는 강경하게 대해야 좋은 의도로 마련된 자리의 뜻이 퇴색되지 않고, 다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할만한 환경을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의 고리를 끊어낸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다나 밥차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밥 한 끼 먹으려고 찾아온 분들을 쫓아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 탄경 스님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고난들이 있음에도 스님들이 다나 밥차 배식 봉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탄경 스님은 “다나 밥차 자체를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온다”며 “부처님은 길 위에서 온갖 어려움을 마주하시면서도 천 가지, 만 가지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고작 순간순간이 어렵다고 나눔 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혜민 스님은 또한 봉사를 ‘수행’ 그 자체로 여긴다. 스님은 “수행에 고난이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에서도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여겨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배식을 받았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며 회향하는 모습은 스님들이 자비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일용직 노동 후 얻은 일당의 일부를 “다나 밥차에 기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부터 목욕탕을 철거하고 나온 고철을 옮기고 받은 일당 25만원 중 5만원을 스님에게 전달하며 “제가 스님 밥 얻어먹었으니 저도 한 턱 내야죠”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스님들은 이런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에 다나 밥차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알게 모르게 얻은 자비나눔이 마음에 자리잡고 있다가 나눔의 원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비나눔의 씨앗이 마음 속에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많은 분들에 전염되길 바랍니다.”

남을 구하고 나를 구하는 자비나눔

혜민 스님은 다나 밥차 봉사자로 활동하며 ‘자비나눔’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스스로 자비나눔 공덕을 쌓을 수 있던 데는 노숙인, 독거노인들의 무료 배식 동참이 바탕이 됐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공덕을 쌓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저 분들을 내가 도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결국 ‘저 분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웃종교계에서 노숙인, 나눔 받는 분들을 두고 ‘천사님’이라고 하던 게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제게는 노숙인 분들이 보살님이고 부처님입니다.”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길 원한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처럼 혜민 스님은 이 땅에 단 한명의 어려운 이웃이 없길 발원하며 올해도 봉사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스님들은 올해 불자들 모두가 “남을 도우며 나를 돕는다”는 자비나눔의 힘을 경험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탄경 스님은 “나누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것이므로 자비나눔을 ‘삶 그 자체’로 여겨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라고 당부하며 “서로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어 준다면 작게는 가정부터 넓게는 한국사회가 불국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민 스님은 “봉사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연민지심(憐愍之心)을 갖고 남을 돕는 행위로 여기서 나도 모르게 자비심이 자라나게 된다”며 “부처님 진리를 깨닫는 지혜의 수행에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를 겸해 지혜와 자비 양 날개를 가진 불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더 큰 자비나눔으로 향하는 다나 밥차

조계사 우정공원 앞의 명실상부한 ‘자비나눔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다나 밥차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다나 밥차는 사정이 어려운 노숙인,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배식을 해오던 곳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다나 식당’으로 변모하는 것이 다나 밥차의 최종 목표. 종로 인근 상가 1층에 자리를 얻어 365일 24시간 문을 열고 청년, 직장인들까지 폭을 넓혀 따듯한 밥을 나누는 서원을 세웠다.

더불어 안국역과 종로 지역 의료진과 협업한 무료 의료 시술·서비스 차량 운영도 목표로 한다. 사회 인프라와 거리가 먼 노숙인, 독거노인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위해 사부대중의 많은 호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처음에는 아무 기반 없이 시작한 다나가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후원자를 300여 명 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을 다나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여기고 국내외의 더욱 많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 탄경 스님

“나눔으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60세가 되기 전까지 10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서원한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다나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혜민 스님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❶ 프롤로그

▶ **이일야 학장**은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과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이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와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2020세종도서),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등 다수가 있다.



詩와 불교적 성찰, 삶을 깨우는 낯선 만남



시라는 인문학의 바다에서 불교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만남이 이제 시작된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생각(生覺), 삶이 깨어나다

언제부턴가 불교 관련 수업을 할 때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한다. 내가 왜 불교를 믿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지나치게 기복적이거나 때로는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앙은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든다. 종교가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종교를 걱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근원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사유가 결여된 무조건적 믿음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생각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일상에서도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어제와 같은 오늘, 업(業)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된다.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생각이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조우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낯선 상황에서 생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운전을 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차가 고장 났나 하고 생각을 한다. 육식을 좋아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채식만 한다거나, 긴 머리를 고집하던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 낯선 상황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 역시 낯선 상황과 만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발동이라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 시민들은 한밤중임에도 여의도로 달려와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지켜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게 가장 놀라는 지점이기도 하다. 2024년 서울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보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젊은이를 향한 기성세대의 편견과 선입견 또한 보기 좋게 깨졌다. 이제 더 이상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고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젊은 10대와 20대들이 거리로 나와 주권자의 권리를 외치면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니 말이다. 낯설고 비극적인 상황을 오히려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으로 바꾼 셈이다. 12·3 '서울의 밤'과 탄핵 정국이라는 낯선 상황은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 싯다르타를 출가와 성도로 이끈 것도 실은 낯선 상황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궁궐에서 항상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이라는 익숙함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몰래 성문 밖을 나가 낯선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늙고 병든 사람과 죽은 시체를 만나게 된 것이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대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 출가를 결심한 싯다르타는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성도에 이른다. 잠자고 있던 그의 삶(生)이 깨어난(覺) 것이다. 낯선 만남은 한 사람을 위대한 성자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낯선 상황과의 만남을 시와 불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필자는 동화나 대중가요, 위대한 철학자와 종교인이 남긴 마지막 말 등을 통해 불교, 혹은 철학적 의미를 성찰하는 글을 써왔다. 불교의 외연을 넓혀 철학과 문학 등 인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 영역을 시로 확대하려 한다.

산문이 비교적 설명적이라면, 시는 압축적이다. 시인은 짧은 문장 속에 자신이 바라본 세계를 상징이나 비유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그려 넣는다. 때로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장치를 동원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시가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일 게다. 그래서 시어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들어있는 우리의 삶(生)이 깨어나면(覺) 얼마나 좋겠는가. 시는 인간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재다.

'생각' 근원은 낯선 상황과 조우
의미 함축 詩, 사유 즐거움 불러
경전 · 법문 요약 '게송' 시와 유사
시 · 불교 연결점 찾는 성찰의 재미

시(詩)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 언(言) 자와 절 사(寺) 자가 합쳐져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만 보면 시는 '절에서 하는 말'이 된다. 물론 시(詩)라는 글자는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존재했으니,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와 절은 묘하게 잘 어울린다. 깨침의 노래인 오도송(悟道頌)이나 입적의 노래인 열반송(涅槃頌) 모두 한 편의 시가 아니던가. 경전에도 수많은 게송(偈頌), 즉 시가 등장한다.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것을 한 편의 짧은 시로 요약해서 마치는 경우가 많다. 시와 불교의 인연이 보통은 아닌 셈이다.

시와 불교의 낯선 만남

지난 몇 년 동안 교계신문에 대중가요와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가요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찾아내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가 글을 읽고 연락을 해와 인연을 맺은 경우도 있다. '동행'을 부른 최성수 가수가 대표적이다. 가수는 어느 날 어머니를 위한 헌정곡을 만들었다며 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에 곡을 붙여 만든 것이었다. 노래를 듣고 시를 음미하면서 낯선 상황이 가져다주는 성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감상해보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엄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노래한다.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앉아 대충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한다. 자식은 그것이 그냥 넋두리 인줄만 알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낯선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엄마가 한밤중에 소리 죽여 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이를 지켜본 본 자식은 그제야 비로소 엄마라는 존재를 깨닫고 이런 성찰을 한다.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시인의 지적처럼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되는 엄마는 없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그런 엄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되는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아니, 그런 엄마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다만 자식들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다. 그런데 혼자 울고 있는 엄마의 낯선 모습을 보고 비로소 자각하게 된다.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낯선 상황과 만나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잠자고 있던 삶(生)이 깨어나는(覺) 순간이다.

이처럼 낯선 상황과의 만남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져다준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글은 시와 불교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를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인문학의 근본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의 시선에서 성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소개하는 시와 불교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본래 불교적 의미를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나름의 논리와 해석을 통해 좁히려 한다. 개인적으로 즐거운 사유의 시간이 될 것 같다.

과연 시와 불교가 만나면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시라는 인문학의 바다에 풍덩 빠져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불교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계를 보려 한다. 아마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도 들을 것이다. 그래도 즐거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와 불교가 만나는 여행에 동참하면 좋겠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5호 | 15 | 전면광고

선업이 있으면 그 자체에 갖추어진 힘 때문에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 나라의 왕이 편들어 주는 힘이라 할지라도 업력에는 못 미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승장엄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건평 : 150평 외
- 매가 : 20억
- 부지 : 160평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위치 : 부산포교원
- 5층건물에 4층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 면적 : 60평실평
- 전철역 출구앞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3억 6000만원

010-3596-0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총평수: 380평
- 대웅전, 산신, 용왕, 노천 해수관음상
- 요사채 30평(현대식 부엌)
- 매매 전세 가능

010-8409-8246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4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우학스님 유튜브불교대학

자매채널 한국불교대학 비유디TV, AI-붓다 영어채널 K-부처님 마을

50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15호 | 16 | 전면광고

너희는 여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경할 것이요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말고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 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비구니 스님 구함

경남 고성
전통사찰 380평
주지로 직접 운영 하실분

010-5033-142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2025 신상출시

NEW 신상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② '어쩌다 마주친, 그대'(2023)

세상에 '어쩌다' 마주친 것은 없다

인생이 긴 듯하지만 지나고 보면 짧고 그 와중에 누구나 한두 가지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꽤 많다.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86-1946)가 쓴 〈타임머신〉(1895)을 바탕으로 한 영화 〈타임머신〉(1960)을 시작으로, 〈터미네이터〉(1984)와 〈백투더퓨처〉(1985), 2000년대에는 〈데자뷰〉(2006)가 먼저 떠오른다.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시간여행을 우리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다. 〈옥탑방 왕세자〉(2012), 〈신의〉(2012), 〈인현왕후의 남자〉(2012), 〈나인〉(2013), 〈미래의 선택〉(2013), 〈신의 선물 : 14일〉(2014), 〈고백부부〉(2017) 같은 드라마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까지 이어져서 〈반짝이는 워터멜론〉(2023)이나 〈어쩌다 마주친, 그대〉(2023)도 만났다. 2020년대에는 단순히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죽임을 당한 주인공이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가는 '회귀물'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2022), 〈재벌집 막내아들〉(2022), 〈내 남편과 결혼해줘〉(2024) 같은 드라마들이다.

우리는 왜 시간여행을 하고 싶어 할까? 시간여행 드라마를 분석한 어느 문화비평가의 말(이영미, 「타임슬립과 현재를 바꾸고 싶은 욕망」, 『황해문화』 83, 2014.6)을 빌리면, 과거를 바꿈으로써 현재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과거로 날아가고 싶을 만큼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그 고통은 단순히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부모나 자식이 죽음을 맞는 극단적인 고통도 있다.

시간여행 드라마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종교적이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진단 아래 안락하고 평화로운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 아닌가. 그래서 불교는 현실이 세 가지 특성(三法印)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라고 한다. 현실 상황은 변화하고(諸行無常)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며(一切皆苦)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諸法無我)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해 특성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을 불교의 목적(열반)이라고 가르친다.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 포스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욕망이 이뤄낸 시간여행
자기 의지 · 노력만이 '자리이타'적 변화 이끌어

오늘 소개하는 드라마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2023)이다. 방송국 사회부 기자 출신 앵커 윤해준(배우 김동욱)은 우연히(!) 타임머신 자동차를 얻어 재미 삼아 시간여행을 하다가 2037년에 자신이 살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을 죽인 사람은 1987년 우정리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됐다. 2021년 현재, 윤해준은 34년 만에 출소한 그를 만나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1987년으로 가서 진범을 찾으려고 한다.

한편 베스트셀러 소설가 고미숙(배우 김혜은)을 전담하는 출판사 편집자 백윤영(배우 진기주)은 어머니 이순애(배우 이지현)가 신발과 유서를 남기고 주검으로 발견되자 평소 가족에 무심했던 아버지 백희섭(배우 이규회)을 저주하며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다짐을 한다.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1987년으로 함께 돌아간 윤해준과 백윤영이 소망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에서 1987년으로 34년을 거슬러 갔으니, 두 사람은 당연하게도 젊은 시절의 가족들을 만난다. 특히 어머니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윤영은 1993년생으로 1987년에 열아홉 살이던 어머니 순애(배우 서지혜)보다 무려 아홉 살이나 많은 상황, 윤영이 순애를 언니처럼 돌보며 우정을 쌓는 모습이 그려진다.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을 과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여행의 큰 매력이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애절함을 느끼는 것 또한 시간여행 드라마를 보는 맛이기도 하다. 열아홉 살 어머니를 만난 윤영의 반가움, 바쁘게 사는 자신에게 한가한 이야기나 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문학소녀였음을 알고 느끼는 미안함, 어머니의 친구였던 고미숙이 빼앗아간 소설을 되찾아주며 느끼는 통쾌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실에서 '어머니가 살아서' 소설가로 성공해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고 느끼는 안도감이 사실은 윤영의 것만이 아니라 드라마 시청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나 '시련에는 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격려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진정한 위안은 오롯이 내가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2021년과 1987년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준과 윤영이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도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드라마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된다.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시간여행이라는 경험은 오로지 나의 의지와 행동으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세계이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대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시간여행 드라마는 상상이긴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쩌다(!)' 마주친 것은 없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 주목해 볼 또 하나는, 해준과 윤영의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 개인의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주변에서 살아가던 1987년과 2021년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1987년 사고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한 학생들을 해준이 구해주었더니 이들이 순애의 첫 팬이 되고, 우정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음으로써 해준은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가족애를 나눈다.

보살은 자신을 위한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고도 한다. 원효 스님은 일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고 표현했다. 드라마는 2037년에 누군가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1987년의 진범을 잡으려는 해준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처음 학생들을 구하면서 "앞으로 이 마을, 살려야 될 사람투성이라고" 하는 그의 대사에서 우리는 뜻밖에 보살의 삶을 본다. 자리가 곧 이타가 되고, 이타가 곧 자리가 되는 보살의 삶 이야말로 2025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철저한 두타행·지계로 수행 모범 보인 선지식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③ 삼계교 창시자 신행 선사 (1)

오늘은 삼계교의 창시자인 신행 선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행 선사(540~594)는 54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가 생존했던 전후 2~300년의 시대는 중국 불교학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진시대 이후 나타난 격의(格義) 불교 사조는 노장(老莊)이나 유교 사상 등의 중국 전통사상의 개념을 통하여 이해하려 한 중국인들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 스님(玄裝, 602~664)이 가져온 상당한 양의 인도불전을 해석하려는 풍조는 중국불교를 본격적인 교학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수·당 시대 중국불교의 13개 종파는 인도 지역에서 태생한 불교를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변화 시켜고 적용시키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13개 종파 중에서 교학에 치중되지 않은 종파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 바로 삼계교와 선종, 정토교였습니다.

이들 종파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삼계교는 민중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려 했는데, '취락불교'란 이름에 걸맞게 사회사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선종은 현실의 불안정함을 출입식 호흡을 도구로 삼아 깨달음을 목표로 했고, 정토종은 오로지 일불, 아미타불을 염불 칭념하여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삼계교를 만든 신행 선사는 어떤 수행을 보였을까요. 먼저 〈역대삼보기〉를 보면 "신행은 두타행으로 하루 한 끼만 걸식하였으며, 도로를 지나갈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법화경〉의 상불경보살의 행동과 같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신행 선사가 지은 〈신행유문〉을 살펴보면 "좌선이란 항시 주야를 불문하고 앉음이며, 오로지 눕지 않고 예불은 정의(淨衣)를 갖추어 삼시에 세욕(洗浴)하며, 주야에 예불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다만 반야의 일시에 눕는 것과 낮의 일시에 식사는 제외한다"면서 철저한 계율 위주의 수행관을 보입니다.

신행 선사는 어릴 적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행유문〉에는 "소싯적부터 고생하며 좌선을 견디지 못하고, 독송도 그러하였다. 17세 이래 선지식을 구하여 지금 48세의 32년간에 이르도록 상주의 광엄사 혜정 스님, 엄정사 도전 스님, 위주의 왕선행과 조주의 완선성 등의 네 명을 얻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이를 보면 신행은 어릴 적부터 병약해 좌선과 강송을 활발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4명의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왕선행과 완선성은 재가자로, 이후 삼계교에서 선지식을 구함에 있어서 승려에 국한하지 않은 점도 종조의 영향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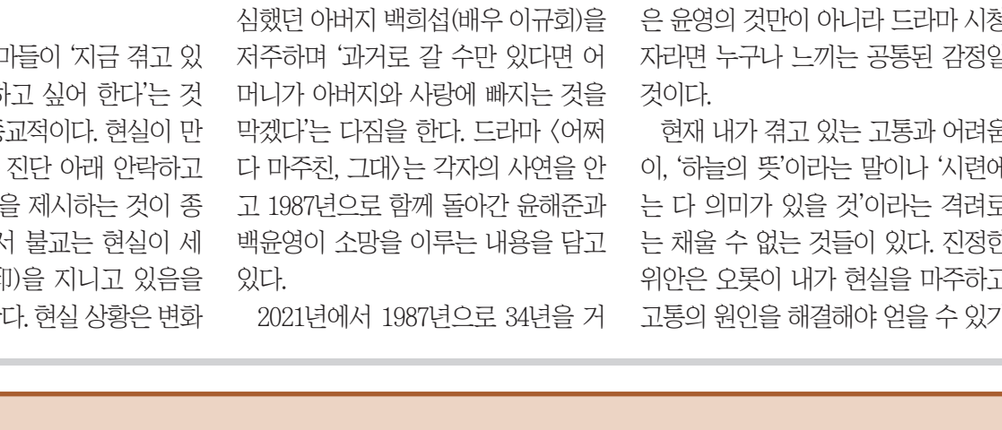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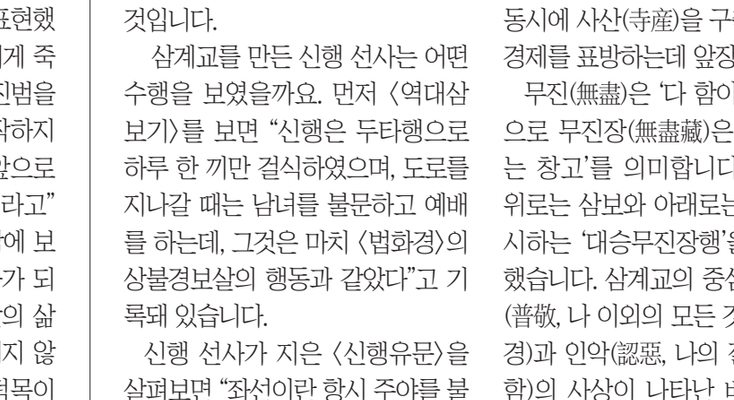
삼계교가 민중의 삶에 집중한 것은 종조인 신행 선사가 살았던 사회 환경과 연관이 됩니다. 이 시기는 5호16국시대로 지역 제후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이뤄졌고, 신행 선사는 수행자로 모든 참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 조세 징수를 이유로 농민의 곡식과 가축들을 탈취하며 온갖 패악을 부렸습니다. 환란과 폭정에 지친 민중들은 살던 곳을 도망쳤고, 일부는 사찰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는 삼계교 사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계교에서는 교의에 의하여, 무진장을 설치하고 빈민 구제와 동시에 사산(寺産)을 구축하며 사원 경제를 표방하는데 앞장 섭니다.

무진(無盡)은 '다 함이 없다'는 뜻으로 무진장(無盡藏)은 '다함이 없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삼계교는 위로는 삼보와 아래로는 빈민에 보시하는 '대승무진장행'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삼계교의 중심사상, 보경(普敬, 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공경)과 인악(認惡, 나의 잘못을 인정함)의 사상이 나타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❷ 청신녀 아엄의 바람

▶한줄 요약
광배 뒷면은 앞면과는 달리 매끈하게 다듬어 마감한 경우가 많다. 글씨를 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불상 제작을 후원했던 한 명 한 명의 불자들은 분명 어딘가에 자신들의 소망을 새겨 항구적으로 기리고 싶었을테다. 상을 만들면서 남긴 기록을 조상기라 한다. 삼국시대 불상 광배 뒷면에 남아있는 조상기는 대체로 왕조의 연호나 간지 같은 기년, 상을 제작한 목적, 발원자, 존격 명칭 등의 순서로 기록됐다.



“태어나는 세상마다 佛法 만나겠다”는 서원 담다

“[소수림왕] 2년(372) 여름 6월에 진(秦)의 왕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浮屠] 순도(順道)를 보내 불상과 경문(經文)을 주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사례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위의 글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서 인용한 것이다. 비록 2줄에 불과한 짧은 기사지만, 불교가 이 땅에 정식으로 전해졌을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기에 더없이 귀중하다. 이 기록에서는 불교가 중국에서 온 스님의 손을 통해, 불상과 경문(經文)이라는 구체적인 성보(聖寶)의 형태로 이 땅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백제나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정황을 알려주는 기록에서는 불상에 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상황은 고구려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불상이 전해짐으로써 고대인들은 처음으로 부처와 대면하고, 점차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로 부처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건흥5년’ 명 금동삼존불 광배〉 앞면과 뒷면, 6세기, 높이 12.4cm, 국립청주박물관.

사진제공=국립청주박물관

불보살의 광명과 불자들의 기원이 담긴 광배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정식으로 전해지고 수용되었던 4세기 말, 우리나라 불교사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제작된 불상들은 지금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삼국시대 금동불상의 상당수는 이보다 한참 후인 6세기에 조성된 것이다. 이들은 광배(光背) 뒷면에 불상 조성에 대해 기록한 명문을 지니고 있어 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알려준다.

광배는 부처와 보살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발하는 빛을 표현한 것이다. 광배는 불상의 중요한 형식적 요소 중 하나로, 이는 부처의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석존을 비롯한 ‘깨달은 이’들은 평범한 인간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대지도론(大智度論)〉과 같은 불교 문헌에서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란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광배는 32가지의 상서로운 큰 특징 중 열다섯 번째인 부처의 몸이 사방으로 모두 한 길의 광명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장광상[丈光相]’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불상을 봐도 광배는 범속한 인간과는 다른 불보살의 성스러움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작은 규모의 불상에서 광배의 역할은 빛난다. 예를 들어, 6세기에 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했던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을 살펴보자.

광배 뒷면 불상 조성 기록서
고대인 신앙생활 엿볼수 있어
손바닥 만한 공간 속 바람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





〈‘신묘’ 명 금동삼존불입상〉 앞면과 뒷면, 6세기, 높이 15.5cm, 개인 소장, 국보.

사진제공=국가유산청

‘일광삼존불’은 하나의 광배 안에 세 존격을 배치한 불상을 일컫는다. 현존하는 삼국의 사례들은 대체로 크기가 작고, 광배는 끝이 뾰족한 나룻배 모양이다. 손바닥 정도 크기에 불과해 다채로운 표현이 제한되기 마련인 소형 불상에서, 커다란 광배는 세 존격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성 있게 묶어준다. 광배의 중심에 배치된 본존은 머리 뒤에는 원형의 후광을, 몸 뒤에는 타원형의 후광을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겹겹의 광명으로 감싸여 있다. 본존과 좌우의 협시보살상을 제외한 광배 앞면의 공간은 작은 부처나 화염 문양 등으로 빈틈없이 장엄한다.

광배 뒷면은 앞면과는 달리 매끈하게 다듬어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글씨를 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불상의 제작을 후원했던 한 명 한 명의 불자들은 분명 어딘가에 자신들의 소망을 새겨 항구적으로 기리고 싶었으리라. 상을 만들면서 남긴 이러한 기록을 ‘조상기(造像記)’라고 한다. 삼국시대 불상의 광배 뒷면에 남아 있는 조상기는 대체로 왕조의 연호나 간지(干支)와 같은 기년(紀年), 상을 제작한 목적, 발원자, 존격 명칭 등의 순서로 기록되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일광삼존불인 〈‘신묘’명 금동삼존불입상〉을 살펴보자. 이 삼존상은 본존불을 따로 제작하여 광배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대좌는 전하지 않는다. 광배 뒷면에는 스님이 네 명의 선지식들과 함께 무량수불 1존을 만들며 빈 소망이 새겨져 있다. 이들은 돌아가신 스승과 부모님이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마다 여러 부처를 만나고, 자신들은 내세에도 함께 태어나 미륵의 가르침을 받길 원했다. 조상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불상의 양식으로 보아 고구려의 불상으로 판단되며, ‘신묘(辛卯)’는 고구려의 평원왕 13년인 571년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나와 가까운 이들의 더 나은 내세를 비는 것은 6세기를 살아갔던 이들이 불상을 조성하는 주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남편이 발원해 만든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광배의 전면 중앙에는 양쪽 어깨를 덮은 대의를 입은 부처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각각 보살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광배의 뒷면에는 “정지원(鄭智遠)이 죽은 아내 조사(趙思)를 위해 금상(金像)을 공경히 조성하오니 빨리 삼도를 떠나게 해주옵소서”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명문에는 불상을 만든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앞서 살펴본 〈신묘명 금동삼존불입상〉 등과 양식이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불상에 새긴 큰 바람

삼국시대의 일광삼존불 중 〈‘건흥5년’명 금동삼존불 광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광배 뒷면에 새겨진 조상기를 통해 6세기를 살고 간 불교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이다.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을 담아 이 불상을 발원했을까.

“건흥(建興) 5년 병진년에 불제자 청신녀(淸信女) 상부(上部) 아엄(兒奄)이 석가문상(釋迦文像)을 만드니, 바라건대 태어나는 세상마다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모든 중생과 이 소원을 함께하게 하소서.”

명문에 언급된 ‘건흥’이란 연호는 사료에 보이지 않아서 삼국 중 어느 나라 것인지 단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좌우 협시보살상과 광배 전반에서 보이는 양식이 앞서 살펴본 〈‘신묘’명 금동삼존불입상〉과 상통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근거해, 학계에서는 ‘병진년’을 536년이나 596년으로 추정한다. 발견 초기에는 충청도라는 출토지에 근거해 백제의 광배로 추정되었다. 근래에는 ‘건흥’ 연호의 사용과 조상기의 형식이 고구려 강역에서 출토된 광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6세기 후반 고구려의 유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이 광배를 발원한 아엄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엄이 자신을 ‘청신녀’라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청신녀는 출가하지 않은 채 재가에 머무르지만, 삼보에 귀의하여 5계를 받아 지키는 신심이 깊은 여자 신도를 뜻한다. 아엄은 곧 가족 내 위치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재가 수행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이다.

아엄은 가까운 사람들의 내세를 위해 불상을 발원한 동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다시 태어나도 일체중생과 함께 부처를 만나 법을 듣겠다고 원을 세웠다. 가족이란 가장 가깝고 절실한 대상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불상 조성의 공덕을 회향한 것이다. 손바닥보다 작은 광배의 뒷면에 새겨진 그녀의 커다란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리움미술관 큐레이터〉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진실한 일념으로 나라는 자체의 소식을 구하라

참다운 인생 살고 싶어요

질문 저는 지금까지 마음공부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마음 도리를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참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길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죽을 때면 벌써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고 하면서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받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마음으로 업을 지어 놓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지하게 고생을 하죠. 모두가 자기 마음으로 지은 것이, 이 모든 생명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있는 이상 자기는 생명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믿고 그러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진정한 자비를 알려면 이 도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고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고 이러는 거,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야, 오늘은 예쁘게 차리고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고, 또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고, 오늘은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또 저거 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또 만나고, 또 살고 재미있게 지내면 이게 사는 보람이지." 이러지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먹더라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꿋꿋한 자기 중심이, 바로 분수를 지키면서 언제나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자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게 공이 아닌가. 그거를 안다면 이 우주 전체가, 즉 말하자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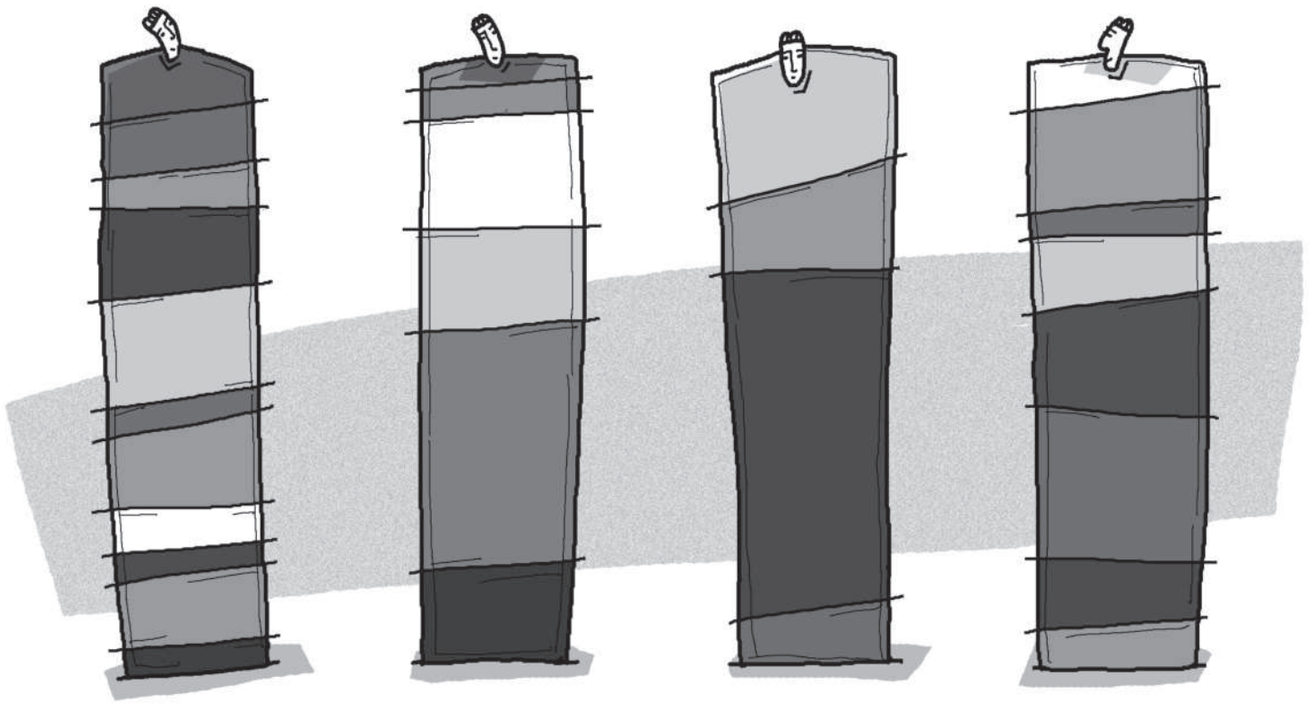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료를 튼튼하게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그 원료를 갖다 쓰려면 갖다 쓰는 거지, 어디고 나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한생각을 내면 전체가 한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굼벵이가 매미만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또 이런 게 있지요? 요걸 한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굼벵이가 벌써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굼벵이가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굼벵이 껍질 이 자체가 굼벵이가 아닙니다. 굼벵이의 마음도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날 것을 미리 해 놓고서 또 날 때가 되면 바로 여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없어지자마자 벌써 여기에서는 매미로 탄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역시 만 9개월이 되는데, 사람도 벌써 여기에서 이게 '내가 벌써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를 벌써 정망해 놓고, 여기에서 정망해서 아홉 달이 돼서 날 때에 벌써 여기에서는 생명이 끊어지고 저기에서는 탄생을 찰나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한 인간의 법칙과 더불어 우주의 법칙이 동시에 같이 한 찰나 한 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원료를 지속하게 쓸 수가 없죠. 모르면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속시킬 수 없다면 내 집도 망가지거니와, 내 집을 바꿔서 좋은 집으로다가 옮길 수도 없거니와, 자유자재할 수 없거니와, 이 지구의 집도 내가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들을 올바로 써야지 마음들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서, 진실치 못하면서 내가 잘 살겠다 못산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은 다 핑계, 좋은 이런 말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면 전체, 뿌리 하나만 싱싱하면 이파리고 뭐고 가장구도 다 싱싱하듯이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모든 게, 가환, 우환 이런 모든 그 액난이 다 거기서 녹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 걱정될 게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바쁘니깐 스님 설법도 잘 못 듣고 그랬으나 내가 스님한테 와서 서너 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그 내 주인공에 딱 맡겨 놓는 그 순간 벌써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 당장 위급해서 이 집을 그냥 다 파산하고 다 몰아갈 상황인데 아, 그날 저녁에 이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냥 이걸 사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팔아서 그거 갚고 나서 반이 남더랍니다. 그러니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에라, 내일 아침이면 벌써 이걸 다 뺏기고 다 거지가 될 텐데 에라, 거지가 되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곤 아예 편안하게 '내일 죽을 테니까 아예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러고선 가서 잠을 자는데, 죽든지 살든지 편안하더랍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야, 여기 집 살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팔고 거지가 안 됐더랍니다.

사람이 어떠한 급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이 진실하다면 죽으나 사나지, 자기를 안 믿어 봤자죠. 그럼 누굴 믿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를 억겁 년 전서부터 참 이렇게 끌고 진화시키고 창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시킨 이 몸뚱이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운전수가 돼 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상식과 교양 모두 잘못되고 잘된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만약에 나쁜 일을 이렇게 한다 하고 생각이 났더라도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바로 자기 몸뚱이를 리드해 나가고, 또 자기 몸뚱이는 마음이 잘못되면 '이건 안 된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고, '이건 된다' 할 때는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게, 내가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성품 자체가 고정됨이 없으니 공이 아닌가. 모든 것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에 간섭 말고 주인공 불바퀴에 놓으라

☞ 19면에서 계속

은 공이면서도 소소영영하게 이렇게 아프면 만져 주고, 또 아프면 금방 통신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당신이 얼마나 고마우랴.' 이렇게 자기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나간다면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자기 보배를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망상과 졸음이 극복 안 돼요

질문 하루 한 시간 정진의 시간을 갖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망상과 졸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옛날 선지식들은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턱 밑에 송곳을 놓고 정진하기도 했다지요. 저도 이런 방편들을 좀 써야 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정신적인 50%의 맛을 모른다면 물질계의 50%에서 허덕거리다가 꺼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 허망한 것이 뭔지 그것조차도 가늠 못 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 계실 때에 모든 상대가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이런 반면에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망상과 졸음 그 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관할 때는 반드시 졸지를 말아야 하고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망상과 졸음을 얘기한다면, 그 졸리고 망상이 난다는 걸림에 걸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잔다 깬다, 잔다 자지 않는다'가 붙어서는 선(禪)에 즉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거기 직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초발심 때는 자경문도 읽고 계율도 엄하게 지켜야 하고 또 망상도 물리치고 졸음도 물리쳐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나가는 관습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좇아가도 아니 되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발자취가 얼마만큼이나 컸나, 한 짝이 크고 한 짝이 작으니까 한 짝을 얼마나 키웠나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졸음을 금하면서 칼을 목에다 대고 하느니보다 모든 것이,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몽땅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로부터 벌어졌으니까 나로부터 알아야 하지 않나? '졸린다, 졸리지 않다, 졸음을 쫓아야겠다' 하는 것도 거기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직결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나'라는 혹성의 본래 자성불은 그대로 둘이 아니게 얽혀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응이 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말을 또 해야 되겠군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집만 받은 겁니다. 자기 나오기 이전 영혼과 나오기 이전에 살 때에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인연들이 전부 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몸속으로 한데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 그걸 모릅니다. 악업 짓고 선업 지은 그 인연에 따라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그것만이 아주 입력이 돼서 현실로 착착 나옵니다, 현실로. 그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도 죽이게 하고, 강도질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또는 선한 일도 하게 하고, 욕도 하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병도 오게 하고, 애고도 오게 하고,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를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는가? 이 주인공에 놓는 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탄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에 왜 간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깐 일어나는 대로, 모든 거를 그 불바퀴에 놔라 이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낫게 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이끌어 줄 수 있다, 나 아닌 나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진실하게 내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이것이 벌써 졸린다 하면 졸리지 않은 게 따라붙고 망상이다 하면 망상이 아닌 것이 따라붙죠.

이러니깐 수박을 놓고선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 봐도 도무지 그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고, 첫째로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가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씨를 찾으려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만 생기는 겁니다. 이 모두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오다 점수다 할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와 내가 상봉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 초발심에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 집에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남의 집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것이지 그럭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전화 올 때를 바라고 전화할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천년만년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또는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안 그렇습니까? 졸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똥이 마려우면 소통이 돼야 하니까 똥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직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사람은 죽을 먹더라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 그러한 꿋꿋한 자기 중심이, 바로 분수를 지키면서
> 언제나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 그러한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망상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일 것이고, 망상이 아니라고, 즉 말하자면 '망상이 없으면 아, 우리가 목석이지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발전으로서의 계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생각나는 대로, 즉 말하자면 좌선이다, 입선이다, 와선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할 때나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모든 걸 막론해 놓고 '그놈이 있으니까 하지. 들이고 내고 하는 놈이 그놈이다.' '그놈은 또 무엇인가?' 하지 말고 '그놈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놈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무엇인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맛도 못 보고 작년 씨가 올로 이렇게 온 거를 모르고, 작년 씨 찾다가 해다 보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께서는 진실하게 일념으로 구했습니다. 진실한 일념, 진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고, 진실한 일념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자체에 있다는 그 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9년 면벽하신 까닭

질문 달마 대사께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다던데요,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

답변 면벽이라고 그런다면 등을 돌려서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게 면벽이 아니에요. 나를 발견해서 견성을 했다면 또 점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깨닫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애를 낳기만 하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가 자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배워야 어른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기는 찾았는데 나를 키우려면…, 내가 이런 말을 했죠. "귀신 방귀씨를 찾았다 하더라도 방귀씨의 그 싹을 키우려면 방귀털을 먹이고 길러야 된다.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이랬어요, 내가. 그 말과 같이, 면벽이라는 것은 벽을 등지고 앉아서, 그렇게 돌아앉아서 면벽하는 게 면벽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따라서 해서는 안 돼요.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어떻게 그 벽을 치는 것 고것만 보고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견성과 둘이 아닌 도리와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돌아가면서, 일분일초도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모든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게 해서 응신으로서 일체 만중생들을 다, 크고 작고가 없이, 높고 낮음이 없이 다 응신으로서 그가 돼 줄 수 있는 그런 나툼이라야만이 구경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넓히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넓히고,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알게 넓히고, 내가 없는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때 가서 구경경지에 이르니까 구정토에 이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벽하는 게 그렇게 면벽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여래선으로서 그냥 하는 것처럼, 지금 둘이 아닌 여래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해야 하니까 이건 평등선으로 그냥 맛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깐 그분은 그렇게 좌선을, 앉아서 면벽을 한 게 아니라, 몸은 가만히 놔둬도 마음은 천리만리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러 만날 다닌 거죠. 우리가 말입니다, 밤에 잘 때는 몸뚱이를 팽개치고 그 마음이 나가서, 온통 일을 저지르든 좋은 일을 만들든, 이렇게 온통 하고 들어오죠. 몸은 자게 내버려 두고, 밤에 나가서 기껏 일하고, 또 낮에 몸뚱이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체가 되죠. 밤에는 떨어지고 낮에는 동체가 되고 이렇게. 깨면 동체가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수한 거니까 낮에 일하면서 마음을 올바로 잘 요량 있게, 지혜롭게 써라. 그러면 밤에도 지혜롭게 행할 거다 이런 겁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내 분노 알아야 분노 다룰 수 있다

㉚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 시리즈 (3)

"내가 좀 이상한 거 같아."

늦은 밤 뜬금없이 받은 친구의 문자이다. 평소 저녁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짧은 전화 통화도 삼가던 친구였기에 갑작스런 문자가 의아했다. 심지어 깊은 밤 12시. 평소와 다른 친구의 행동과 짧은 문자 속에 복잡한 고민이 읽혔다.

친구는 아픈 딸에게 화가 난다고 했다. 며칠 전부터 잦은 기침이 신경이 쓰여 옷을 따뜻하게 입혔는데 갑갑하다고 옷을 벗고 다니더니 결국엔 열이 끓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아플 때 속이 상해서 화가 날 수 있지 않겠냐"는 나의 말에 친구는 그렇게 단정하기엔 "자신이 좀 이상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되갚아주고 싶어."

어렵게 말을 꺼낸 친구는 보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자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데 어째서 보복하고 싶은지 스스로가 무섭다는 말도 덧붙였다.

"되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너는 정말 보복할 것 같아? 잠깐 스친 그 생각마저도 두려울 정도로 수연(가명)이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화가 나는 그 순간 널뛰는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 두려운 위협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친구는 순간 떠오른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며 놀란 마음을 다독였고, 목소리는 점차 차분하게 변해갔다.

분노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기 때문일까? 분노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며 친구의 적절한 대처(알아차린 후 멈추고, 견디고,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태도)도 눈여겨보게 됐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나눠 설명한다. 이유는 분노의 형태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날드 포터 에프론(Ronald T. Potter-Efron)의 설명에 따르면, 폭발하는 '돌발성 분노', 오랜 시간 쌓고 결정적인 순간 보복하는 '잠재적 분노', 공포와 트라우마와 싸우는 '생존성 분노', 무력감과 관련 있는 '체념성 분노',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면 참을 수 없는 '수치심 분노',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관계형 분노' 등이다.

먼저 돌발성 분노는 '통제력 상실'이 특징이다. 흔히 보는 '욱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대부분은 "내 성격은 뒤끝이 없다"며 포장한다. 그들의 분노는 빠르고 강력하며 예고가 없기 때문에 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주변인들은 폭격을 맞는 느낌이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일 한번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되고, 가족이나 친구가 "너는 화가 나면 미친 것 같다"는 말을 한 적 있다면 돌발성 분노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돌발성 · 보복성 등 분노 유형 多
유형별 대처 방법 역시 상이해

이런 경우라면 정말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다. 자신의 성격을 합리화하지 말고 분노가 폭발했던 순간을 파악해 언제, 어떤 생각이 들면 폭발하는지 공통점을 파악해야 한다. 촉발 원인을 찾아내 알고 평소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미리 조심해야 한다. 예방이 최선인 유형이다. 또 분노 조절이 힘들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지수를 확인하고 몸이 피곤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자신을 살펴야 한다. 타인을 다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라면 약물치료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분노를 쌓아두는 '잠재적 분노'이다. 잠재적 분노는 오랜 기간 축적하는 특징이 있다. 비참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공평한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이 촉발 원인이 되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쌓아가며 과거에서 비롯되는 분노이다. 잠재적 분노는 예상이 가능하고 언젠가 폭발할 것이란 경고를 하기도 하며, 이글거리는 화산처럼 뜨거운 분노를 품고 있는 경우다. 피해의식, 집착, 증오, 복수로 해결하려는 원망, 계획범죄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그들은 받은 상처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후에는 생각에서 벗어나려 해도 계속 반추하는 특징도 갖게 된다. 잠재적 분노는 속상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런 경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작은 것이라도 확인하고 물어보고 오해라면 풀고, 생각의 차이라면 이해와 공감을 해야 한다.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다면 불교의 자비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생존성 분노이다. 이 경우는 인간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 생존성 분노는 "당신이 나를 위협하니 내가 당신을 먼저 죽이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생존성 분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연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 화살을 겨눈 사냥꾼 꾹꾸따밋따가 생존성 분노이다. 사냥꾼에게 사냥감은 생계, 즉 생존이다. 누군가 고의로 자신이 잡은 짐승을 풀어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생존이 위협받은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는 일곱 명의 아들과 며느리, 아내를 둔 가장이었다.

분노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분노 대처 기술 STOP'(앞 연재 참고) 때문이다. 지난 연재에서 충동을 멈추고, 한걸음 물러서 거리를 두는 인내는 강조한 바 있다. 분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노를 알아야 하기에 설명은 이어질 예정이다.

틱낫한 스님은 책 〈화〉에서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라고 했다. 스님의 말씀처럼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그에 앞서 분노의 씨앗을 구분할 수 있어야 마음 정원을 꽃으로 가꿀 수 있다.

건강 365

㉛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산만한 우리 아이 ADHD 일까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는 학령기 및 학령전기 아동에서 흔히 진단되는 소아정신과 질환으로,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의 증상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아동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는 학령기 아동의 약 3~5%에서 나타나며, 남아가 여아보다 3~4배 더 많이 진단됩니다. ADHD 아동은 학업에서 어려움을 보일 뿐 아니라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쉽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말 안 듣는 아이'라는 평을 종종 듣게 됩니다.

ADHD가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1) 과잉행동 :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2) 주의력 결핍 :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한 가지 과제나 활동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자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숙제를 잊어버리는 일도 자주 나타납니다.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5~10분이 지나면 꼼지락거리거나 딴 짓을 합니다.

3) 충동성 :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해 버리는 수가 많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끼어듭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아이들과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은 같은 나이나 발달 수준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런 증상과 행동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ADHD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신경 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ADHD의 치료에는 약물치료, 부모 교육과 상담, 가족·놀이치료 또는 정신·인지행동치료, 사회성 훈련, 특수교육 등이 있습니다. 한 사례에 어느 한 가지 치료법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몇 가지 치료법을 병합하여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각성제 계통에 속하는 약물과 비각성제 계통에 속하는 약물들이 치료제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과잉행동·주의력 결핍·충동성
약물, 비약물 치료 병합해야 해

ADHD 약이 공부 잘하는 게 하는 약이라는 긍정적인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듣고 우려 섞인 문의를 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ADHD 약은 공부 잘하게 되는 약은 아니라서 ADHD의 병적 증상이 없는 일반 학생이 복용을 하면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ADHD 약을 비정상적으로 과량복용하는 등의 남용을 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ADHD 질환을 겪는 아이는 전두엽 도파민의 활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활성을 보충해 주는 것이 치료 원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치료제로 허가된 각성제 약물 성분에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유일합니다. 도파민 합성도 늘리는 작용을 하는 암페타민과는 달리 메틸페니데이트는 본래 가지고 있던 도파민을 방출, 재흡수를 멈추는 작용을 하므로 중독과 연결 짓기 어렵습니다. 고용량 처방 용량으로 생각했을 때도 중독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허가된 약물을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처방에 맞게 안전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부모 교육으로 양육 기술을 변화시켜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양육자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지시하지 않기, 시간 설정 명확히 하기, 과제 난이도 조정, 긍정적인 행동에 즉각 칭찬하기 등) 또한 사회성 훈련, 신체활동 증진도 아이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양육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스마트 폰, 태블릿 등 기기로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지양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과제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곤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3세 이전에는 미디어 시청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몸으로 놀 수 있는 교구로 학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반대하는 추세이며, 작년 스웨덴 교육부에서는 10세 미만의 글쓰기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학령기 및 학령전기 아동은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법과 적은 양이라도 재미없는 일을 꾸준히 하는 생활 습관을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온라인 동영상이나 AI, 학습 애플리케이션으로 학습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개입은 ADHD가 있는 아동의 다양한 삶의 영역과 두뇌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경진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일일시호일

'가족과 함께하는 삶',
3m서 추락하며 산산이 부서진 꿈

줌머인 차크마 수실 씨, 한국 동경해 입국
3m 높이서 떨어지며 양발 뒤꿈치 골절상
최소 6개월 치료 필요…부상에 일할 수 없어
아내·아이와 한국서 살고 싶어…생계 문제로 위기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전법 일기

相이 높으면 사람들은 절 안으로 오지 않는다

처음 포교당을 하게 되었다고 은사스님께 말씀드렸을 때 걱정이 많으셨다. 비구니 선원이었던 동화사 양진암으로 출가했던터라 포교당을 한다 했을 때 승려가 대중이 아닌 '독살이'의 포교당이 마땅치 않으셨다. 그도 그럴것이 상노스님 때부터 노스님, 은사스님 모두 선원에서 스님들 외호하시며 참선 공부만 하셨다. 주변에서 절을 지어주겠다고 신도님들이 말씀하셔도 절이 많으면 한 가지도 못한다며 오롯이 양진암을 지키셨다. 당신 상좌들도 그렇게 오롯이 공부하길 바라셨던 거였다.

그 속에서 필자도 그렇게 살려 했었다.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기 전까진 말이다.

우연히 신문에서 비구니스님들 대상으로 국제불교영어학교 학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용인 화운사에서 1년간 기본 회화를 비롯해 불교를 영어로 공부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목표였던 것 같다. 각국의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내 타종단의 불교 교단과 타종교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 영어로 발표하기, 더불어 한국불교의 문화, 수행법 등등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과 시험이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후에 동국대 대학원에서 국제불교영어학과 석사과정으로 연결되어 필자의 지금 포교활동에 근간이 되었다.

기본은 간단하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첫 문제가 '나는 외국인이라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 불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였다. 불교에 대한 정의, 가치관 확립부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만들어 낸 답도 정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고민이 깊을수록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

수업 과정 중 SNS를 활용하는 수업도 있었다.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유행하던 터라 필자도 사찰이나 사지(寺地)에 있는 국보나 보물을 소개하는 'Treasure Hunt in Gyeongju(보물찾기)'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가입해 소통했다.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SNS를 활용해 계속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

불교를 영어로 배우면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상(相)이 자연스레 옅어진 것이다. 외국의 수행센터를 견학하며 느낀 점이기도 한데, 권위적이고 경직된 수행풍토에서 벗어나야 공부가 더 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 특히 젊은 MZ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다.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법을 펼 때 남녀, 종교와 같은 차별이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포교당도 그렇다. 상(相)이 높으면 사람들이 절 문(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수행과 소통은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기본이다. 최근엔 요가모임 단체와 108배를 하며 108번뇌의 의미에 대해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음에 같이 봉정암 순례를 가기로 했다.

얼마나 환희로운 관계맺음인가!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묵은 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을사년(乙巳年) 새해, 〈맹자(孟子)〉를 읽는다. '이루상(離婁上)'편에 나오는 '칠년지병 구삼년지애(七年之病 求三年之艾)'란 문구에 눈길이 머물렀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오랜 병을 앓고 있었다. 효심이 돈독한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병간호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때 지나가던 스님이 "3년 묵은 쑥을 다려 드리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은 3년 묵은 쑥을 찾아 나섰다. 어디에서나 자라는 것이 쑥이요. 며칠만 지나면 곧 마르는 풀이 쑥이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쑥이기에 사람들은 구태여 3년씩이나 말려둘 필요가 없었다.

아들은 온 천하를 뒤졌으나 3년 묵은 쑥을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7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이 스님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쑥을 뜯어 말렸다면 아버지의 병을 고쳤을 것이다.

지난해는 겨울로 들어서자 흰 눈이 내렸다. 100여 년 만에 쏟아진 폭설은 세상을 뒤덮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은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져 땅 위로 널브러졌다. 소나무들의 어깻죽지가 쩍쩍 벌어져 떨어져 나간 붉은 속살에서 고통스러운 솔 향이 진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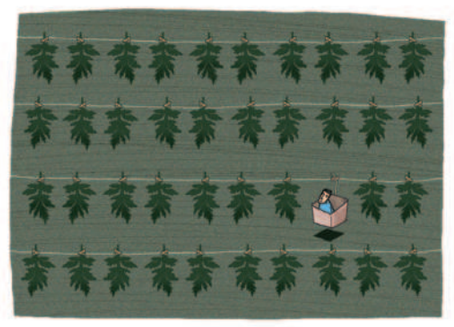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연은 세상의 표상이라 했던가. 갑진년(甲辰年) 겨울은 천간(甲)과 지지(辰)가 제 강건함만 믿고 우쭐댔던 것일까. 폭설이 그치자 우리 사회는 권력 집단들이 각각 제 목소리만 높여 민초들은 어둠의 혼란으로 울분의 붉은 피를 흘렸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수뇌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느라 화합이란 단어는 사라져 버렸다. 평소에 웃음을 짓고 악수를 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를 온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겠는가.

묵은 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3년 묵은 쑥이 필요할 때는 즉시 베어 매달아야 한다. 어찌 그것을 밖에서 오랜 세월 찾아 헤매는가. 내 집안에서, 내 마음에서 바로 쑥을 잘라 말려야 한다. 자기가 베어 말린 쑥을 달이는 것은 자신의 성찰과 미루지 않은 실행이다. 그 탕약이 아버지를 살리고 이웃을 구한다.

슬픔이 가득할 때는 기쁨의 씨를 뿌리고, 불화가 넘쳐흐를 때는 화합의 씨를 뿌리고, 억울한 일이 많을 때는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한다. 산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이 되듯, 내 마음의 밭에도 기쁨과 감사와 예불(禮佛)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부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담장 밑에 심은 작은 나무가 자라서 길 가는 사람에게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마당에 심은 작은 꽃 한 포기가 자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 내 안에서 서서히 피어오른 불성은 세상을 환하게 밝혀 준다. 평소 미래를 향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을사년(乙巳年)에는 소박한 민초들이 따뜻한 기운으로 아름다운 꽃 피우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그 온기를 밖에서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마음 속 자등명(自燈明)에 불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작가〉

기자칼럼

"그것만큼은 말하지 말았어야죠!"

2022년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주인공 '문동은'의 명대사가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은 가해자인 '박연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딸이 있는 학교 교사로 부임한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박연진은 그의 친모인 '정미희'를 사주해 문동은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한다. 사실을 안 문동은은 분노에 차 절규한다.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

오랜만에 도반들과 함께 온라인 법회를 가졌다.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복장' 터지는 말을 듣고 말았다. 한 도반은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말을 한 불자에게 들었다고 고백했다. 지도하는 법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충격"이라며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데 안타깝다. 송구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는 '여성불성불설'은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섣불리 펼친다면 수행·전법 현장에서 정진하는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은 쉽게 반박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문장은 불교 안에서 성립될 수 없다. "일체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씨앗인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 덕분에 차별받던 많은 사람이 자유와 해탈을 맛보았다. 또한 불교는 모든 실체를 부정하는 '무아(無我)' 사상이 핵심이다. 그런 불교가 '성(姓)'이라는 실체를 세워 성불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부처님 재세시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의 서사를 모은 〈테리가타〉, 여성의 몸으로 깨달은 승만부인의 이야기가 담긴 〈승만경〉 등 붓다가 된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

'어머니'라면 자식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재가불자도 똑같다. 재가불자는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다. 친구가 근거 없는 말로 같은 불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히 이같이 말하고 싶다. "그것만큼은 말하지 말았어야죠!"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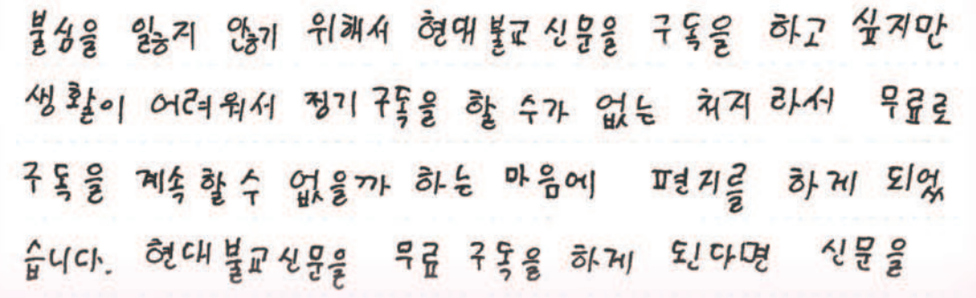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2025년, 포교 전환의 해로 만들자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을사년 새해에 즈음하여 한국불교는 전법교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내외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서 종교적 원리주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안정을 찾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추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침체기에 직면하였고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종교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재정적 위기, 신뢰도의 추락이 염려되고 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향후 사찰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로 출가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자들의 신행활동 참여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젊은 층들의 템플스테이 참여가 증가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종단과 사찰에서도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서 수행포교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시의적절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 포교방법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의식과 의례, 그리고 신앙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포교방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전통 포교방법 한계 직면 예상
시대 조류 맞는 포교방법 필요
가정·직장 중심 포교 활성화를

한 신세대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고, 공감하는 이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SNS로 빠르게 전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불자들도 SNS로 전해지는 각종 종교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사찰에서 신도들을 동원하려면 합리적 설득,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매우 바쁘다는 점이다. 모두가 각자의 일이 있고, 취미와 관심사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이 필요한 연령층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을 하고자 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 직장과 직능별로 현장에서 포교할 수 있는 전문포교사가 요구된다. 때문에 사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포교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포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신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법,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간단하게 불교의식으로 봉행하는 법,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등이 있을 때 삼보를 예경하고 축원문을 낭독하는 방안 등이라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하는 불자들이 많아지면 생활불교가 실천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신행활동이 사찰로 이어지고, 직장과 직능에서의 포교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올해는 가정과 직장 포교가 활성화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각 종단과 사찰에서 종책을 마련하고 확산시키기를 바란다.

좋은 사회 만들기,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연말연시가 되면 흔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기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주고받는다. 해가 바뀐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의 다사다난함이 아직은 계속되는 것 같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이어지는 정치·사회적 혼란은 기대만큼 빨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난데없는 비행기 추락 사고는 신년벽두를 비통함으로 물들였다. 추운 겨울밤 광장을 메운 이들에게, 황망한 빈소에 주저앉은 이들에게 어떤 덕담을 건네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라는 몇 년 전의 외침이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 좋은 사회에 살고 싶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다. 최소한 이게 나라냐는 자조와 비아냥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좋은 사회, 좋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를 우리

불국토 등 이상향은 '좋은 사회'
불교 사상, 이상향 도래의 해법
구현 주체로 노력하는지 자문을

는 원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장차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가 보장되고,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공되는 사회,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평등하게 소통하고 토론함으로써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를 우리는 바란다.

이처럼 이상향은 한없이 풀어낼 수 있다. 극락, 천국, 용화세계, 서방정토, 불국토 등도 모두 좋은 사회, 좋은 나라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 좋은 나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불교는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미륵상생신앙이 강조하는 십선업(十善業), 유마경에 제시된 각종 수행이 모두 그것이다.

또한 중도, 팔정도, 육바라밀, 사섭법 등 불교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실천 윤리들은 연기적 세계관을 토대로 나와 내 가족, 이웃, 나아가 세상을 고통에서 벗어난 정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연기의 관점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은 실천을 통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 불교적 해법의 근간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방법을 실천하는 '누구'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를 알리고,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주체가 있는지, 또 그들이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금 우리 불자들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불자 모두가 언제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社 說

선명상 대중화 통한 전법 나서자

조계종이 올해도 '선명상 대중화'를 역점으로 포교·전법에 나선다.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처님 법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1월 8일 열린 '불기2569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평가 및 37대 핵심 주요 종책과제 이행 점검 워크숍'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인사말에서 알 수 있다.

진우 스님은 "포교가 안 되면 불교는 살길이 없다. 1970~80년대만 2000만 불자에서 2000년대부터는 1000만 불자, 지금은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명상이 보급되면 전법도 자연히 이뤄진다"고 밝힌 스님은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이 같은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종무행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올해에도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암동 조계종 중앙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제선명상대회를 열어 선명상 인프라 결집을 추진한다.

포교·전법이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탈종교,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를 넘는 것은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의 사람들은 자신의 니즈를 충족 시켜줄 때 비로소 종교의 문턱을 넘는다. '선명상'은 그 문턱을 넘게 하는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전법에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태허 조사 정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는 관음종이 개산조 태허 조사를 기리는 법회와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관음종은 1월 8일 대전 계룡스파텔 화랑홀에서 제62차 중앙종회를 열고 종단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관음종은 창종 60주년을 맞아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올해 10월 국립극장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1부는 관음종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의 법어와 법요가, 2부는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조사가 저술한 〈인생탈춤〉을 토대로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선보여진다.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는 경북 백화산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한국전쟁 중 서울이 수복되자 상경해 참상을 목도하고 대중교화에 나섰다. 수행자로서 선방에만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조사스님은 후학들에게 "우리 수행자는 일반 신도나 속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설파하며 대중교화에 나섰다. 1958년부터 2년 동안 매일 오전 10시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종로3가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했다. 그 이후에는 전국 오일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전했다.

오로지 위민안락과 불법(佛法)홍포를 위해 거리에 나서 부처님 법을 전했던 태허 조사의 정신은 현재를 살고 있는 후학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불자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하신 태허 조사의 유훈을 후학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월 1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1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1월 15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g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